

北 4차 핵실험 임박설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제3288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6일>

코스피 1894.09 (+47.46)
코스닥 667.44 (+22.01)
금리(국고채 3년) 1.71 (+0.02)
환율(원·달러) 1186.00 (+3.00)

정의선은 몰랐을까



현대엠코의 정의선 개인회사 지원,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구조 유사
2007년에도 정의선 개인 비상장사에 계열사 지분 등 몰아주다 적발
"정의선, 서림개발 지원 지시했거나 사후인지했을 땐 배임죄 공범"

현대엠코(현 현대엔지니어링)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서림개발(주)에 수억원을 지원한 것(본지 8월 26일자 기사 참조)이 2007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 드러난 계열사 돈 횡령·배임과 유사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사례 모두에서 정 부회장의 비상장 개인회사가 등장하고,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이들 비상장 회사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정 부회장의 후계구도 구축에 동원되는 것이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은 '지유'라는 정 부회장(당시 기아자동차 사장)의 개인회사를 중심으로 후계구도를 짜는 과정에서, 기아차 등 계열사 돈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가 드러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처벌받은 사안이다.

서림개발은 정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부동산 관리 회사다.

경기도 광주시 팔당호 주변에 밝혀진 것만 30만평 이상의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엠코가 정 부회장의 비상장 개인회사인 서림개발을 지원한 것은 2007년 당시 지유라는 비상장 회사를 계열사들이 지원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정 부회장이 팔당호 주변에 대규모 토지를 사들인 이유가 그룹 승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이들 토지는 현재 대부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있지만, 현 상태에서도 남양연구소 같은 연구소나 병원 등은 허가받을 수 있다.

이런 작업을 현대차그룹이 실제 진행할 경우 이 일대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이들 토지를 담보로 대출만 받아도 정 부회장은 상속세나 주요 계열사 지분 확대 등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 부회장이나 정 회장이 현대엠코의 서림개발 지원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도 높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엠코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묘목 식재용 토지임대 명목으로 서림개발에 8억여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현대엠코는 경기도 퇴촌면 서림개발 땅 바로 옆에 얼마든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을 최소한 1천여평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땅을 놔두고 굳이 비슷한 형질의 인근 땅을 빌려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고, 그 수혜자가 그룹 오너 일가라면 이를 결정한 현대엠코 당시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또 상식적으로 서림개발의 주인인 정 부회장이나 정 회장이 이같은 지원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림개발 토지 인근 마을 한 주민은 "10여년 전부터 서림개발이 보유한 대규모 토지에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가 들어설 것이란 얘기가 돌았다. 현대차가 나서면 땅값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자신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한정식집에 정 회장도 몇 차례 다녀갔다며 "최근 놀이공원이 아닌 한화리조트 같은 임직원용 리조트 시설이 들어설 것이란 얘기가 있다. 주변에 팔당호도 있고 공기도 좋고 입지가 최적이다. 길 건너에 정 회장의 별장도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실린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관계자는 "현대차가 대규모 개발을 해 어떤 것이든 시설이 들어설 것이란 말은 예전부터 돌았다. 서림개발 일대 산이며 임야는 전부 현대차그룹 관련 땅으로 알고 있다"며 "매물로 나온 게 아니어서 실측은 어렵지만 그 일대 땅을 100만~200만평 규모로 보고 개발이 된다면 수천억~수조원을 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정 부회장 부자와 현대차그룹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홍보실 관계자를 포함해 누구도 성의 있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잘 모르는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이정필·유선준 기자 roman@metroseoul.co.kr

2007년 비자금 사건과 정의선

검찰은 2006년 6월 1천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비자금 조성의 목적이자 최대 수혜자였던 정의선 당시 기아차 사장은 아버지인 정 회장이 모든 걸 짊어지고 가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사 초기엔 검찰은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총지휘했다면 정 사장은 조성한 비자금의 최대 수혜자였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속 수사까지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정 회장만 기소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검찰은 당시 정 사장을 기소유예하면서 "부자를 함께 법정에 세우는 건 가혹하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 현실 속에서 기아차 경영을 맡고 있는 정 사장마저 기소하면 기아차 경영 공백이 우려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07년 6월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된 정의선 부회장의 범죄 혐의는 정몽구 회장에 뒤지지 않았다. 본텍 등 기아차 계열사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을 이용해 후계구도를 짜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다 최소한 500억원대의 횡령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판결문 요지다.

결국 정의선 부회장은 최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지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된 것이다.

정몽구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8년 6월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정필·유선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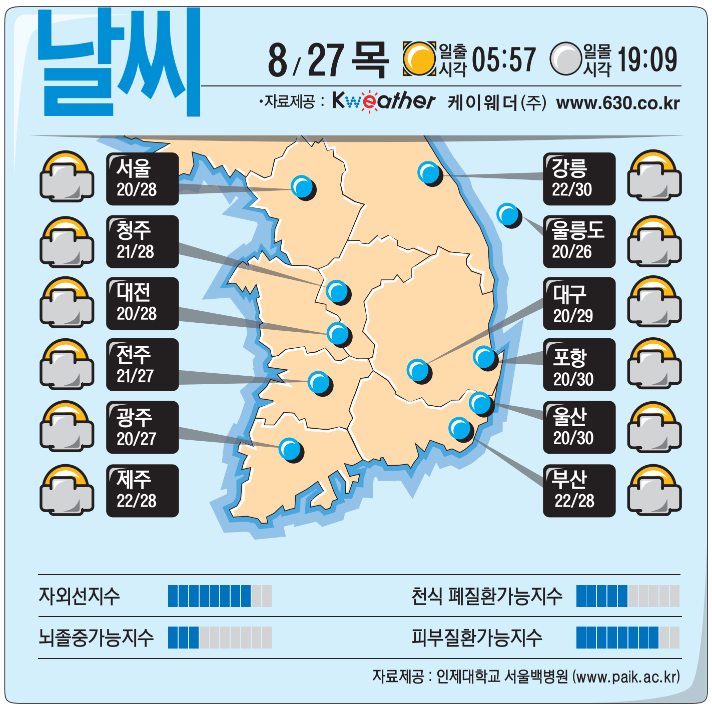
알림

옥인동 신사옥으로 이사합니다

metro

메트로신문이 8월 28일(금) 옥인동 신사옥으로 이사를 갑니다.

새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19-53번지)



정치



▲ 전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오 청와대 오찬장소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138명 의원을 초대했다.

▲ 핵탄두 개발을 위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북한은 남측과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대화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을 겨냥한 전력 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남북 고위급 접촉이 한창이던 지난 23일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지뢰 폭발**이 일어나 육군 하사관 1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북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모두 쉬쉬했기 때문이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30~31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국이 주관하는 북극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사회



▲ 최근 불륜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강용석**(46)씨가 불륜 의혹이 제기된 상대의 남편에게 공갈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 무겁고 큰 가구를 버릴 때 집 앞까지 수거원이 와서 가져가는 **'문전 수거'** 서비스가 일부 중소 도시에서 시범으로 도입된다.

▲ 장기간 전보가 제한되는 **'전문직위'** 재직 공무원은 성과평가에서 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낮아져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1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교원에 의한 중대한 **성폭력 사건**은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하게 되고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



▲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아시아인들의 원정출산을 비판하자 워싱턴DC 일대 대표적 한인 단체인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가 젭 부시에게 한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 최근 베이징(北京) 정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은 것은 **리커창** 중국 총리의 안위다. 증시 붕괴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의 책임을 리 총리가 뒤집어쓸 판이라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 **세계 증시**가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이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중국 측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문제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 미국에서 **드론**(무인기)을 이용해 총기, 마약, 담배, 포르노 비디오 등 여러 금지 품목을 교도소로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제

▲ 다음달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이 최근 3년 동월 평균(2만2696가구)의 세 배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전국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6만6110가구다.

▲ 올 2분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긁은 카드 금액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분기 **해외카드이용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 2분기 중 국내 거주자(법인 포함)의 해외 카드 이용액은 33억2000만달러(약 3조9600억원)로 집계됐다.

▲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 침체 속에서도 2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외국인들은 이날도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다. 26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7.46포인트(2.57%) 오른 1894.09에 마감했다. 이로써 코스피는 19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결제가 되는 **생체인식 기술**이 금융산업에 도입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대강당에서 생체인증기술을 KB금융 계열사에 소개하기 위한 '제2차 KB핀테크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故 정주영 회장·이병철 회장 우표입니다 26일 서울 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직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고(故)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우표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총 100만 장으로 두 경제인의 생전 모습과 함께 정주영 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병철 회장의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기업인으로서의 철학을 문구로 담았다. /연합뉴스

국제



▲ **포스코**ICT(대표 최두환)가 중국 산둥성 정부와 협력해 현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스모그 등 대기오염 방지와 수처리, 폐자원화 분야에 본격 진출한다.

▲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사업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삼성전자 중국사업 전체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글로벌 현장경영이 본격화된다.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이 선택한 첫 글로벌 현장은 중국과 대만 등 범 중화권 핵심 거점이다.

▲ **SK텔레콤**은 26일 첨단 ICT 기술력 등 보유 R&C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결정하고, 현재 인터파크 등이 포함돼 있는 컨소시엄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 **백화점업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여파에서 벗어나 7월 매출 회복에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0.7% 상승했다.

▲ 앞으로 20만원이 넘는 **해외직구** 물품이 3kg이하 일 경우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또 통관인증 대상이 늘고 해외직구 물품 A/S 환경이 개선돼 병행수입물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고 경영투명성 강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롯데그룹은 26일 이봉철 롯데정책본부 지원실장(부사장)을 팀장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 TF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 소셜커머스 **쿠팡**이 오픈마켓 분야까지 진출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나섰다.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란 쿠팡 측의 진출 취지와 달리 관련 업계는 '상품수 늘리기' 전략이라는 평이다.

▲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TV홈쇼핑을 통해 안방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과 같은 화장품 대기업이나 주요 브랜드숍 화장품 업체들이 로드숍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브랜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 핵탄두 시험 원해"… 4차 핵실험 임박설

페리 "北 지도부 결단 중" 미국에 '충격요법' 준비 중 포격도발도 미국 겨냥 분석

핵탄두 개발을 위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북한은 남측과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대화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을 겨냥한 전력 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국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25일 일본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핵폭탄을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한다는 목적이 있어 과학자들이 핵폭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핵실험을 요청하는 것 같다"며 "북한 지도부에서 핵실험 단행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재임 시절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페리 프로세스'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국제자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일본 방문도 자문단 회의 참석을 위해서였다. 북핵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공식화한 직후인 2012년 4월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서 열병하는 SA-5 지대공미사일. /연합뉴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2012년 4월과 12월 장거리 미사일(은하 3호)을 연속으로 발사하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직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하기도 했다.

2년 반이 지난 현재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는다. 10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대내적으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성과를 내놔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긴장 완화가 있어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2012년의 '2·29 북미합의'를 파기한 뒤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으로서는 고강도 충격요법에 손 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의 원인인 북한의 지뢰 도발도 결국 미국을 겨냥한 위기 조성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제분석국장은 북한의 포격도발을 앞두고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방향을 바꾼다면 무기체계 시험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시위,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도발로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포격 도발 당일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군은 준전시상태를 빌미로 후방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전투배치하고 잠수함 전력을 총출동해 미군 수뇌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미군 수뇌부는 이로 인해 긴급하게 한반도 전쟁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

북한이 한발 더 나아가 핵탄두 개발에 성공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관측이다. 현재 북한은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내부의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사대는 은하 3호보다 장사정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靑 '북한 굴복' 자축 파티

새누리당 의원 오찬 초청 당·청, 화기애애 시간 보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연찬회 중이던 새누리당 의원을 모두 청와대로 초청해 북한을 굴복시킨 일을 자축했다. 오찬의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자축 파티의 성격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국가 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일촉즉발의 긴박한 순간들이었지만 또 다시 이런 도발로 우리 국민들의 안위와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원칙을 가지고 임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장 서 줄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말하는 중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라거나 "항상 건강을 기원하겠다"는 말로 의원들을 각별히 예우하며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무성 대표는 "남북 긴장 문제로 나흘 동안 거의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피곤도 잊고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우리 새누리당의 성공이고,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건배사에서 "남북회담의 결과가 대통령의 좌우명인 원칙의 승리였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송병형 기자

선거 주무 장관 "총선 필승" 건배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의 건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건배사까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해석하느냐며 반박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서 총선필승이라는 건배사 외쳤다는 언론 보도에 충격 금할 수 없다"며 "정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유 대변인은 "행정자치부는 선거가 공정히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라며 "그런 점에서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장관이 총선필승을 외친 것은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건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밀하게는 새누리당이라는 구체적인 명칭도 쓰지 않았다"라며 "건배구호까지 당리당략과 정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박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



눈물 닦는 문형표 보건복지장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임사를 마친 후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접촉 중 지뢰사고…'쉬쉬'

하사관, 아군 지뢰에 골절상

남북 고위급 접촉이 한창이던 지난 23일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지뢰 폭발이 일어나 육군 하사관 1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사흘이 지나 뒤늦게 알려졌다. 남북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모두 '쉬쉬' 했기 때문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시작은 지난 4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였다. 이후 남측이 보복조치로 대북 확성기방송을 시작했고 북측이 위협 포격을 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자 양측이 긴장 해소를 위한 고위급 접촉에 나섰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46분께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도 연천의 육군 25사단 지역에서 A하사가 비무장지대 수색정찰 작전 중 지뢰를 밟아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지뢰 덧신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어 심한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

A하사는 지난 25일 국군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2~3개월 후 완치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A하사는 당시 우리 군이 관리하는 지뢰지대 부근을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합참은 동료 수색대원들의 진술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아군의 대인지뢰인 M-14 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27일께 나올 예정이다. 남북 접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현장 정밀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송병형 기자

국감 앞둔 국회… 재벌은 올해도 출장중?

형제난·메르스·땅콩회항 등 증인 채택 가능성 높지만 해외출장 '되풀이' 전망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국정감사 일정이 나온 가운데 2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재벌 총수의 명단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의 관리 문제, 삼성 합병 논란, 롯데가 상속 다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옥중 갑질 논란 등 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복마전으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재벌 총수들의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줄곧 공언해온 상황이다.

이번 국감을 두고 가장 시선을 끄는 인물은 최근 '형제의 난'을 일으킨 롯데그룹의 총수들이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있던 뒤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공언해왔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에도 국회 증인에 채택됐다가 불출석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출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개혁의 목소리를 키운 롯데가의 신 회장은 국감에 소환됐을 경우 416개의 복잡한 롯데그룹 순환출자 고리 회로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26일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하며 국회를 향해 순환출자 고리 정리 의사를 부각하고 있다.

삼성그룹도 자유롭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 신분으로 국감장에 설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 산하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확산의 몸통으로 지목된 상태다.

올해 3월 70억원 규모의 현금 인출로 비자금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도 안심하긴 어렵다. 최근 국세청의 2차례의 기업 세무조사 결과 수십 개의 차명주식 또한 발견된 상태다. 이에 신세계 측은 비자금에 관해선 법인카드로 결제가 힘든 경조사비 등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차명주식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로 국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올해도 같은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는 올해 초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과 회원정보 1694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사 등에 팔아넘겨 총 2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홈플러스의 모회사 테스코는 홈플러스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3년 치의 감가상각비를 한 해에 계상해 의도적으로 장부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재벌 총수가 관련되자 소관 상임위 관계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총수들이 거론되긴 하는데 당과 의논 해봐야 한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 역시 "현재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을) 거론 중에 있으나 말할 단계는 아니다. 합의 단계에 가면 말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 차원의 승무원에 대한 회유·압박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 임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론하고 있지만 역시 논의 내용을 보안에 부치고 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새정치연합 특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실의 관계자는 "국감 증인은 취합이 완료되면 말씀드릴 수 있다. 잘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는 기업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했다. 이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복잡한 지배구조와 폐쇄경영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롯데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시민단체 출신의 전문가로 정무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김기식 의원도 "국감 증인 채택에 있어 성역은 없어야 한다. 롯데와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은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자 대기업들은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재벌개혁 여론에 선 기업들은 총수를 국감 출석에서 빼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제까지 재벌 총수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르면 외국 출장을 핑계로 국회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벌에게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윤정원·김성현 기자 garden@metroseoul.co.kr

中 "증시 위기 확산은 미국탓"

미국 금리인상 저울질 등 신흥국 불안감 조장 주장

세계 각국에서 증시 위기를 부른 중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중국이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야오위동 금융연구소장은 "애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르면 9월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에 신흥국 자금 유출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해하면서 미국 증시가 주저앉고 자산 투매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이 미국 증시 폭락을 가속화시키면서 전 세계 자산에 대한 매도세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신용위험을 다시금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2% 인플레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준 통화정책 운용 기준인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 6월 전년대비 1.3% 상승에 그쳤다.

민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리질린 민생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불안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이 크지 않다"며 "위안화 평가절하가 증시에 부담을 주기는 했지만 큰 충격은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미국 등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대대적인 투매가 일어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사태에는 유동성 경색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중국 밖 미국 분석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의 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번 사태가 경제 펀더멘털과 별 연관이 없다. 아시아 외환 위기도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책임론에 맞서는 차원에서 이 같은 분석을 다시 부각시켰다. /송병형 기자

"리커창, 증시 폭락 희생양 가능성"

FT "시진핑, 관리부실 책임 물을 듯"

중국발 증시 폭락 사태를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면피를 위해 권력기반이 취약한 리커창(사진) 총리를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요즘 베이징의 공산당 간부들과 정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리 총리가 중국 증시 관리의 부실과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냐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공산당 소식통들은 지난 7월 초 나온 중국 증시 부양책을 진두지휘한 것은 리 총리와 마카이 국무원 부총리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 대책을 믿고 증시에 다시 뛰어든 투자자들은 불과 몇 주만에 폭락장을 마주했다. 리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리 총리는 또 올해 봄 FT와 인터뷰에서 위안화 절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비난을 받고 있다는 말도 있다.

리 총리는 7월에는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증시 폭락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평론가들은 리 총리가 현실을 모른다고 조롱하고 있다. 세계 증시가 폭락한 지난 24일에도 리 총리는 중국 3D 프린팅 산업 발전을 주문했다.

윌리 람 홍콩중문대 교수는 "최근 위기로 인해 리 총리의 입지가 더 위태로워진 것은 분명하다. 시 주석에게 희생양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리 총리가 적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중국 당국이 리 총리가 내놓은 정부기관의 대규모 주식 매입을 통한 증시 부양 방안을 포기한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도 당장 리 총리가 문책 당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도중에 총리를 교체할 경우 당의 위엄과 신뢰도에 손상이 크기 때문이다.

케리 브라운 호주 시드니대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리 총리에게 온갖 힘든 일이 할당된다는 점에서 그가 축출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 그를 교체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2017년 당대회에서 체면을 살려주면서 내보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총기사고, 기강해이냐 관리 부실이냐

경찰측 "장난치다 일어난 일"
학계 "전반적 관리부실" 지적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발생한 총기 오발사고로 의경 1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문소에서 박모 경위가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모 상경의 왼쪽 가슴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5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내년 1월 전역을 앞둔 의경이 왼쪽가슴에 총을 맞아 숨졌다.

26일 서울 은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구파발 검문소에 근무하는 박모(54)경위가 근무교대를 하고 자신이 담당하던 내무반에 들러 간식을 먹고 있는 내무반원들에게 '왜 나를 빼고 먹느냐'며 박모(21)상경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꺼내 겨누던 중 실탄이 발사됐다.

그 당시 내무반에는 4명의 의경이 휴식을 취하면서 간식을 먹고 있었고 박 경위가 총을 들자 다들 관물대 뒤로 숨거나 손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장비관리규칙' 123조(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를 보면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할 때 반드시 총구는 공중 또는 지면 등 안전지역을 향하고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1탄은 공포탄을 장전하도록 하고 있다.

박 경위가 사용한 권총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탄창이 12시 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첫 번째 구멍은 공탄(탄이 없는 상태), 두 번째 구멍은 공포탄, 세 번째 구멍부터 실탄이 장전되는 구조다.

박 경위가 장난으로 내무반원들을 위협하려고 권총을 꺼내 든 과정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된 것이다.

경찰은 "박 경위가 근무교대 과정에서 탄환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근무를 시작했고 사망한 박 상경과는 연애상담도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전했다.

이어 "박 경위는 자주 총기를 가지고 내무반원들에게 장난을 치며 지냈고 실탄이 발사된 순간 자신도 놀라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있었다"고 했다.

한상훈 은평경찰서 형사과장은 "사고가 일어나자 마자 박 경위를 유치장으로 압송했고 죄책감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밥도 먹지 않고 있다"며 "박 경위가 안전장치도 풀고 자신이 발사했다고 인정해 그 당시에 '왜 그랬냐'고 물으니 '자신도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평소 검문소내 총기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범죄심리학)는 "군경합동검문소라는 근무 환경 특성상 박 경위는 늘 권총과 함께 하는 환경이다"며 "일선 경찰서로 오면 경위라는 직책이 낮은 계급이지만 검문소에서는 거의 왕으로 군림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리볼버 권총은 일반 소총과 달리 탄을 일일이 삽탄해야 하는데 다르게 장전했음에도 박 경위가 평소와 같이 장전했다고 착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문소에 근무하는 의경들도 평소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박 경위의 행동에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암묵적인 적응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 경위가 총기를 겨누는 행동이 친근함의 표시였고 총기가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며 "검문소내 총기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은평경찰서는 박 상경의 전사처리(근무중 순직)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중이고 내무반에 있던 4명의 의경들에게는 심리치료를 시작했다.

박 경위에 대해서는 파면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현명 기자 hmbok@metroseoul.co.kr



비행기 누가 빨리 끌까 26일 양양국제공항에서 열린 소아암 어린이 돕기 비행기 끌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힘을 합쳐 이스타항공의 보잉 737-700 기종을 끌고 있다. 재미있는 재단이 개최한 이날 대회는 팀(25명)별로 3m를 어느팀이 빨리 끄는가를 겨루는 기록경기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세월호 불법집회 혐의' 박래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경찰 방패에 되레 다쳐"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래군(54)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다쳤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위원 측 변호인은 "미신고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은 인정하지만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맹목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의 지시와 선동으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기물을 파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박 위원이 10일째 단식 중이어서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시민들이 다쳤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경찰이 차벽을 치거나 세월호 유족을 폭행하는 등이 같은 상황을 유발했다며 이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 위원은 김혜진(47·여) 운영위원과 지난해 7월 24일 세월호 100일 집회와 올해 4 월11일부터 5월 2일까지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올해 6월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박 위원 측 변호인은 "악의에 의한 발언이 아니라 의혹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였다"며 "조선일보도 칼럼으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발언이 지나쳐 상당성을 잃을 정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위원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으나 구속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이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인 60여 명을 선임했으며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 7명이 출석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0일 오전 10시10분이다. /연미란 기자

"통화중 길 건너다 교통사고땐 본인 책임"

보행자도 법규 준수해야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A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고 B씨의 운행 방향 차선은 소통이 원활해 평균 속도를 냈다. B씨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량 운행 신호여서 그대로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때 반대 차선의 정체된 차량들 뒤쪽으로 A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나왔다. A씨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고, B씨 역시 A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8개월여간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4300여만원을 부담하고 A씨가 본인 부담금으로 920여만원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A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B씨의 운행 속도가 그 앞 차량에 비해서 과속이라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의 시야에 나타난 시점과 사고 발생시까지의 시차가 매우 짧다는 점도 고려됐다.

2심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며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본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최근 보행자의 부주의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커진 만큼 보행자들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현대중공업 파업 출정식 현대중공업노조가 26일 오후 회사내 노조사무실 앞 광장에서 조합원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출정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 쟁취를 위한 투쟁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무효

대법, 근로자만 불이익 감수하는건 불합리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일해온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 발령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간부사원도 팀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 또 그간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 일부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급여 체계를 변경했다.

2006년 3월 이후 놀이기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마련한 방책이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가 2007년 6월 팀장과 선임 등 간부로 일해온 박씨 등을 팀원으로 발령내자, 이들은 자신들을 강등시켜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전보 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롯데월드가 잇따른 안전사고와 거액의 재정손실 등으로 경영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 등에 대한 전보명령을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런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보직부여 기준안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봤다. 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죽음 임박해 유언장 작성, 법적 효력은?

생활 법률

오랜기간 암투병 중이던 A씨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유언장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2015년 7월 10일 A씨는 부인과 장남 앞에서 '보유한 예금 120억원을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장남에게 그대로 받아서 적게한 후 세상을 떠났다. 사망한 A씨를 포함해 그의 부인과 장남 모두 유언장에 서명했고, A씨가 사망한 뒤 열흘이 지난 7월 20일 장남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둘째 아들은 이로부터 보름이 지난 8월 5일 A씨의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거부당해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장 작성을 모르고 있던 둘째 아들은 A씨의 예금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민법은 혹시 모를 유언의 왜곡과 법적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 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 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증언'에 해당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은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된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구술해야 하며, 유언자와 증인들 모두 유언의 내용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한 후 서명 혹은 기명날인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증인들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A씨가 사망한지 열흘 후에 유언장 검인이 가정법원에 신청됐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유언장은 무효로 처리된다. /김서이 기자

교원 성범죄 전담수사·가중처벌

경찰, 교내 성폭력 예방 강화

교원에 의한 중대한 성폭력 사건은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하게 되고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범죄이거나 ▲피해 교사나 학생이 5인 이상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은 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수사를 맡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가중처벌과 신고의무 위반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아청법은 교사와 같은 특수직군의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피해자 수사만 하다 보면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며 "가중처벌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내임을 감안해 학교 내 성범죄 사건 수사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원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나 교육 당국이 징계 수위를 정할 때 형사 입건 여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서이 기자

檢, 홍준표 금품수수 일시 '2011년 6월 중하순' 특정

검-홍 '증거목록' 의견 엇갈려



홍준표 경남지사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금품수수 일시가 지난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사건 자체가 4년 전의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2011년 6월 중하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지사 변호인이 "중하순이라고 하면 (한 달 기준) 10일 정도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검찰은 "2011년 6월 11일부터 30일"로 확정,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검찰과 홍 지사, 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 기일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의견에 대해 사전 요청했는데 그간(첫 재판 이후)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하자 홍 지사 변호인은 "증거 목록에 포함돼 있는 증거와 수사 기록까지는 모두 검토가 됐는데 윤 전 부사장과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확보가 늦어져 의견서 제출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부사장 측은 모든 증거 의견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

홍 지사 변호인은 검찰이 진술 증거로 제출된 경남기업 직원, 윤 전 부사장 등의 진술에 대해 회유해 의해 객관적 진술 확보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홍 지사 측이 (객관적이지 못한 진술 등으로) 전반적인 증거에 대해 부동의 취지로 얘기하는데, 녹음 파일 등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진술도 있다"고 인정하며 "회유에 가담한 청구인에 대해 변호인이 부동의 하더라도 그 실체는 재판장에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관련, 윤 전 부사장과 홍 지사에 대해 별도로 진행한 뒤 마지막 기일에 병합해 종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우리쪽 증거를 들은 뒤 하는 것이 좋겠다"는 홍 지사 측 의견과 "(공여자는 사망했고) 현존하는 (전달자) 윤승모에 대한 증거 조사를 먼저 했으면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다음 준비기일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6일 오전 11시 열린다. /연미란 기자 actor@

인강재단, '전관예우' 이사진 선임… 재판 대비 의혹

'장애인 학대' 논란 등으로 재단 산하 시설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이 최근 검찰과 경찰 출신 거물 인사들을 이사진으로 영입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 검·경 고위직 출신을 재단 이사진에 포진시키려 한 것은 '전관예우'를 기대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강재단은 지난달 박종구 서울지방경찰청 전 정보·보안부장을 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히고 과거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현재 인강재단 산하의 장애인복지시설 인강원은 장애아동 학대 및 국고보조금 횡령 파문으로 관련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시설 송전원도 이달 초 장애인 가혹행위 논란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인강재단의 검·경 출신 거물급 인사 영입이 해당 사건 담당기관의 후배들에게 '전관예우' 압박을 주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상준 인강재단대책위원장은 "재단이 최근 맞닥뜨린 위기를 꼼수로 타계하려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이근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단 이사로 들어왔고, 서울 소재 장애인시설 감시와 징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인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 인강원 원장으로 영입된 바 있다.

이들이 영입됐을 때는 인강원과 관련한 논란이 일기 시작됐을 무렵이어서 이들의 영입 배경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미란 기자

프리미엄/수익형상가

소액투자 수익형 상가



남양주시 별내 택지지구내 상가로써 분양면적 780㎡전용면적 440㎡의 상가.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이있다. **급매가 11억** (수익률 년 7.2%) 현금3억원매수가능, 소액투자자한테 적합한상가.

핫 ! 이슈

홍익대학교 임대용 빌딩

홍대 메인 상권에 위치한 임대수익용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510㎡ 연면적 270㎡의 부동산이다.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급매가 72억원

종로대로변 임대용빌딩

1호선 동묘역 출구 대로변코너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 540㎡ 연면적 1800㎡의 건물로써 병원등 우량한 임차업종이 입주해있다. 현재 보증금 9억원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매매가격 95억원

강동구 임대용빌딩

강동구 상업지역에 입지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10㎡ 연면적 3,300㎡의 건물 현재 보증금 8억원에 월 약6,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전층 병원 및 유명 프렌차이즈등이 입주해있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원하는 투자자한테 적합한 매물이다.

매매가격 120억원

2호선 강남역빌딩

국내 최고 상권인 2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 대기업등의 업무시설,어학원 및 근생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대지면적 340㎡ 연면적 2,000㎡ 근생건물이다. 현재 보증금 8억 6,000만원 월 7,8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매매가격 150억원

경기도 의정부시 신세계백화점 앞 빌딩



의정부 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 입구에 위치한건물 대지 340㎡ 연면적 1100㎡ 현재 보증금 2억9천, 월 1700만원 임대료발생, 전층 근생업종이 입주해있고 의정부 핵심 상권인 신세계백화점 입구에위치 유동인구 최고의 상권임. **매매가 45억원**

논현역 대로변 빌딩



7호선 논현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490㎡ 연면적 1,600㎡의 빌딩으로써 현재 보증금 3억2,000만원 월 3,1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한다.
성형외과, 피부과등의 병원, 또는 사옥용으로 적합한 매물이다.

매매가격 105억원

의정부시 을지대 병원앞 빌딩



현재 최고의 지기 상승 및 미래가치가 보장된 **을지대학교 신축부지앞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05㎡ 연면적 1200㎡의 임대용 건물이다. 보증금 2억원 월 1200만원의 임대 수익이발생. 향후 을지대학교및 부속병원이 완공될시 최고의 상권으로 급부상이 기대된다. 전층 근생업종 입주. **급매가 36억원**

길동역 , 대수선용빌딩



길동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 대지면적 720㎡ 연면적 2,200㎡의 건물 현재 보증금 5억4,000만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외벽 및 실내를 대수선 공사 완료시 보증금 7억5,000만원, 월 5,70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된다.

매매가격 110억원

2호선 봉천역출구 사옥 및 병원용빌딩



대지면적 530㎡연면적 2,000㎡의 건물로써 **2호선 봉천역 출구 대로변 코너에 위치.** 사옥, 또는 병원등에 적합한 건물이다. 현재 보증금 3억8,000만원에 월임대료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매매가 80억원

문의전화 : 02)557-1027 / 010-5273-3985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프리미엄·역세권 / 빌딩·상가 매매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문의 : 010-9000-1782**

역삼역 역세권 수익용 신축빌딩



역삼역 3분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메인상권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대지 520㎡, 건물 2,00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6억5,000만원, 월수익 6,400만원이 나온다. 신축건물이며 우량한 임차인구성으로 공실이 없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 매매가는 150억이다.

신논현역 메인상권 수익용 근생빌딩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메인상권 코너에 위치한 수익용 근생빌딩이다.대지 440㎡, 건물 1,600㎡, 지상6층 빌딩이며 보증금 6억4천만원에 월수익 6,500만원 정도다.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좋고 모든 임차업종이 근생으로 이루어져 공실염려가 전혀 없는 빌딩이고 매매가는 165억이다.

청량리 초역세권 대로변 급매각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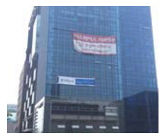
청량리역 앞 대로변 위치하여 가시성 및 접근성이 좋은 임대용 급매빌딩이다. 대지 420㎡, 건물 1,100㎡, 지상5층이며 보증금 5억에 월수익 2,500만원 정도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개발호재 등 투자가치가 있는 빌딩이다. 매도인 사정상 급매로 진행하며 매입 후 임대관리 및 향후 신축시 수익성 및 투자가치를 급상승 시킬 수 있는 빌딩이고 매가는 58억이다.

역삼역 임대수익용 빌딩



역삼역 1분거리에 위치한 공실없는 임대수익용 빌딩이다. 대지 500㎡, 건물 1,250㎡, 지하1층 지상4층 근생빌딩임. 주변 프랜차이즈 식당 및 커피숍 등이 즐비한 활성화된 상권에 입지하였다. 보증금 4억 월수익 2,900만원이며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건물 상태는 최상이며 매가는 72억이다.

논현역 출구 앞 강남대로변 신축빌딩



논현역 출구 바로앞 광대로변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대지 370㎡, 건물 2,85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약14억에 월수익 8,200만원 정도이다.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등 메디컬 위주로 임차가 이루어져 있으며 매가는 220억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동시에 향후 분당선 연장개발로 인한 투자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희소성있는 특A급 빌딩이다.

대치동 사옥 겸 임대수익용 빌딩



삼성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사옥 및 임대용 빌딩이다. 대지 440㎡ 건물 1700㎡, 8층 건물이며 주변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일부 사옥을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학원 등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사옥으로 사용 할 수도 있고 전체 임대수익용 빌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수익률은 5%정도이며 매가는 110억이다.

강남역이면 구조조정 임대용 빌딩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테헤란로 바로이면에 위치한 법인 구조조정 임대용빌딩이다.
대지 350㎡ 건물 2,000㎡ 지상10층 빌딩이며 현재 공실은 없으며 월수익 5200만원이고 수익률은 5.5% 정도이다. 법인 소유의 빌딩으로 사정상 주변 거래시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매가는 110억이다.

고수익용 분양상가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위치한 분양상가 건물이다.분양면적 780㎡이며 현재 스크린골프업체가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원으로 장기임차 중에 있다. 수익률은 8%이상이다. 주변지역이 정비되어감에 따라 향후 투자가치도 예상된다.

중고차 매매

- **싼타페DM 2륜 프리미엄 13년 1월 크림색**
  완전무사고 썬루프 정품네비 45000km (매매/2600)
- **더 뉴 아반떼 LPI 흰색**
  완전무사고 15년형식 35000km (매매/1160)
- **제네시스 모던 13년 4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후카 1만km (매매/3250)
- **뉴카렌스 GX 최고급형 검정**
  완전무사고 78000km (매매/900)
- **싼타페 CM SLX고급 흰색**
  썬루프 네비 스마트버튼 완전무사고 15만km (매매/1050)
- **더 뉴 아반떼LPI 검정**
  완전무사고 15년형식 47000km (매매/1160)
- **에쿠스 380 프레스티지 검정**
  완전무사고 15년 3월 네비 뒷좌석TV 6천km (매매/8550)
- **그랜져HG 240 검정**
  완전무사고 12년 2월 네비 후카 51000km (매매/2200)
- **카니발R 9인승 12년 7월 은색**
  완전무사고 네비 자동문 VDC 6만km (매매/2040)
- **더 뉴 K9 GDI VIP 14년 11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3천km (매매/6100)
- **스마트 흰색**
  완전무사고 14년 9월 2천km (매매/2330)
- **BMW 520D 12년 5월 검정**
  완전무사고 썬 네비 49000km (매매/4000)

문의 010-2727-5622

코스피 반등에도 외국인 매도세 지속될까

外人 15일째 '셀 코리아'… 시가총액 비중 30% 밑으로
美 금리인상 앞두고 통화가치 하락한 신흥국 자산 정리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26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7.46포인트(2.57%) 오른 1894.09로 마쳤다. /연합뉴스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 침체 속에서도 2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외국인들은 이날도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다.

26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7.46포인트(2.57%) 오른 1894.09에 마감했다. 이로써 코스피는 19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상승률(2.57%)은 지난 2013년 7월 11일 2.93% 이후 코스피가 기록한 일일 최대 규모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이날도 5467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15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올 들어 최장 기간 순매도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은 국내 대표 종목들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였다. 이 종목을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5200억원 어치나 팔아치웠다. 이어 삼성전자(-3143억원), SK텔레콤(-1562억원), 아모레퍼시픽(-1227억원), POSCO(-944억원), LG생활건강(-848억원), 기아차(-835억원) 등도 대량 매도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신흥국 자산을 일부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도 30% 밑으로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가운데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29.59%를 기록했다. 전체 시총 1313조7410억원 가운데 외국인 보유 금액은 388조7330억원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시총 비중은 지난해 말 대비 대형주와 중형주에서 각각 1.85%포인트, 1.71%포인트 하락했다. 소형주의 외국인 시총 비중은 0.26%포인트 줄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우량기업 0.14%포인트, 벤처기업 1.28%포인트, 신성장기업부 0.50%포인트 등으로 감소했다.

외국인 시총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기계다. 지난해말과 비교해 22.91%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음식료가 4.22%포인트, 운수창고와 서비스업은 각각 1.81%포인트, 1.52포인트 줄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중국 경제의 정상화에 따른 이머징 마켓의 회복세"라고 입을 모은다.

한요섭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비단 외국인이 한국시장에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머징마켓에서 이탈하고 있다"면서 "이미 글로벌 이머징펀드에서는 5~6조원의 자금이 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세는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라며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로 수출에서 플러스 반전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배성진 현대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시장이 단기적인 낙폭 과대,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으로 반등했다"며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줄고, 외국인이 돌아설 때 지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유안타증권, ELS 3종 공모 유안타증권이 오는 28일까지 다양한 조건과 수익구조로 설계된 ELS 3종을 총 3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ELS 3426호, 3427호는 만기 3년의 스텝다운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ELS 3426호는 KOSPI200지수, 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각 최초기준가격(100%)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6.80%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상환된다. /유안타증권 제공

'옛 삼성물산' 증시서 '아듀'… 내달 15일 합병 상장

시가총액 27조원대 예상
신규투자 유입가능성 있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상장을 앞두고 27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제일모직과 합병을 앞둔 삼성물산 주식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됐다. 이날 삼성물산은 모처럼 5.02% 상승 마감했고, 합병 상대인 제일모직도 9.70%나 급등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내달 1일 합병해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새로 상장한다.

법률적으로는 제일모직이 존속 법인, 삼성물산이 소멸 법인이지만 통합 법인의 사명은 '삼성물산'이 된다.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수(이하 보통주 기준)는 1억8969만45주다.

합병 이후 양사의 시가총액은 27조원대로 예상돼 삼성전자와 현대차, 한국전력에 이어 시총 4위 자리를 차지할 전망이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인덱스펀드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유입될 수 있다"면서 "건설과 패션부분의 실적도 올해 4분기부터 개선될 전망이어서 주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민지 기자

미래에셋證, 구의·여의도서 자산관리 세미나

미래에셋증권 구의지점과 여의도영업부가 27일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구의지점 세미나는 오후 4시부터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02 진넥스오딧세이빌딩 2층에 위치한 구의지점에서 진행한다.

1부에서는 류시명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3팀장이 강사로 나서 스펙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전략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이전식 미래에셋증권 구의지점장이 강사로 나서 하반기 금융시장을 전망하고 하반기 자산배분 전략을 제안한다.

여의도영업부 세미나는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38,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2층에 위치한 여의도영업부에서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중국 위안화 절하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 증시를 전망한다.

세미나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증권구의지점(02-458-6644), 여의도영업부(02-3774-1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지 기자

'대북사업 정상화 기대'에 주가 22% 올라

현대상선
전날부터 상승 탄력받아

현대상선이 남북 당국간 협상 타결로 대북 사업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급등세를 나타냈다.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상선의 주가는 전날보다 22.51% 오른 8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현대상선은 2거래일 전에도 남북대화 기대감에 힘입어 코스피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바 있다. 전날 7% 상승세에 이어 이날까지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상선의 최대 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도 전일대비 7.1%나 오르면서 6만6400원에 마감했다.

현대아산은 지난 2008년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돼 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대상선은 비상장사인 현대아산의 최대 주주다.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면서 남북관계에 추가 진전이 있을 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현대상선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됐다. /김민지 기자

2분기, 해외서 33억2000만 달러 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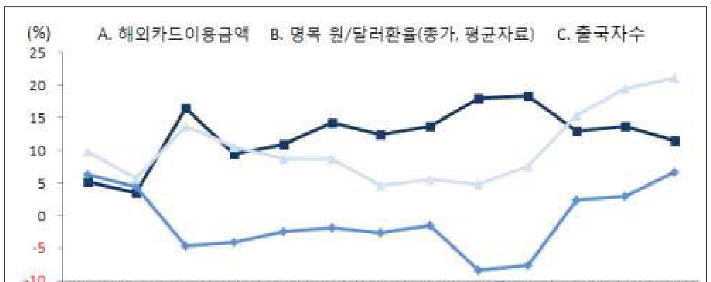
원·달러 상승에 증가율 둔화
메르스 영향 외국인 결제↓

올 2분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긁은 카드 금액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분기 해외카드이용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 2분기 중 국내 거주자(법인 포함)의 해외 카드 이용액은 33억2000만 달러(약 3조96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11.5% 증가한 규모다. 다만 증가율만 보면 지난해 2분기(17.9%)보다 6.4%p 떨어졌다.

해외카드 이용금액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인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12/2Q	12/3Q	12/4Q	13/1Q	13/2Q	13/3Q	13/4Q	14/1Q	14/2Q	14/3Q	14/4Q	15/1Q	15/2Q
A	5.2	3.5	16.4	9.4	10.9	14.2	12.5	13.6	17.9	18.3	13.0	13.8	11.5
B	6.4	4.4	-4.7	-4.1	-2.5	-2.0	-2.6	-1.4	-8.3	-7.6	2.4	2.9	6.6
C	9.9	5.6	13.7	10.5	8.7	8.7	4.5	5.6	4.8	7.5	15.4	19.4	21.1

해외카드이용실적 관련 주요변수 증가율(%). /여신협회 제공

지난해 2분기 달러당 1029.2원이던 원·달러 환율 종가 평균은 올해 2분기엔 1097.4원으로 올랐다.

여신협회는 "달러화 강세와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카드이용금액 증가율의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 발급 감소와 직불형카드 발급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이용형태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히 해외직불형카드이용금액 증가율(13.0%)이 해외신용카드이용금액 증가율(10.9%)을 상회했다.

2분기 해외 직불형 카드 이용액은 9억1000만 달러로 신용카드 이용액(24억 달러)보다 적었지만 증가율은 더 높은 것이다.

해외카드 이용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99 달러(약 12만원)로 국내 승인건당 평균 결제금액인 4만5529원의 3배가 넘었다.

업종별로는 식당(5.2%), 백화점(-1.3%)처럼 오프라인 거래비중이 높은 업종보다 음반(83.1%), 통신판매(128.6%), 서점(47.4%) 등 온라인 직접구매가 활발한 업종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달러화 강세로 미국의 해외카드 구매금액 증가율은 9.1%에 그쳤다. 반면 베트남은 출국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43.5% 늘어난 데 힘입어 해외카드 이용액은 56.3% 확대됐다.

한편 해외 거주자가 올 2분기에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대금은 지난해 동기보다 6.4% 줄어든 27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거주자의국내카드이용금액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2007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여신 협회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감염우려로 외국인의 방한여행이 자제되면서 입국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7.8% 감소했다"며 "여행수지가 악화되고 국내 관광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신한카드-인도네시아살림그룹 제휴 조인식 신한카드는 인도네시아 여신금융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현지 파트너인 '살림그룹'과 스와달마 파이낸스 지분 인수에 대한 제휴 조인식을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했다. 왼쪽부터 안드레아스 인도라이프 대표, 주삭 인도모빌 대표,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테디 아수란시 센트럴 아시아 대표, 프레디 아수란시 지와 센트럴 아시아 라야 대표. /신한카드 제공

NH농협 '금융플랫폼 기업' 선포

"핀테크 활성화 추진"

NH농협이 금융플랫폼 대표 기업을 만들 것을 선포했다.

26일 NH농협은행은 농협상호금융과 'NH핀테크 오픈플랫폼 모델링 협약식'을 열고 20개 핀테크 기업과 모델링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20개 기업은 'NH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함께 만들게 된다. 또 오는 12월 NH핀테크 오픈플랫폼 정식 출범과 동시에 해당 기업의 핀테크 서비스를 적용하게 된다.

앞서 NH농협은 핀테크 서비스 연결을 위해 핀테크 산업별로 모델링 기업을 선정했다.

모델링 분야는 ▲스타트업 ▲글로벌 ▲금융사고예방 ▲B2C(간편 결제/송금, 크라우드펀딩) ▲B2B(ERP, 결제대행) ▲G2B(공기업) ▲제휴API 등을 포함한다.

농협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핀테크 시장을 모두 아우른다는 전략이다.

특히 NH핀테크 오픈플랫폼이 출시되면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서비스에서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과 결합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IT기업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오픈플랫폼'을 금융사가 직접 구축한 후 '금융 API'를 공개,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NH농협이 최초"라며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추진에도 좋은 참고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주하 은행장은 환영사에서 "농협을 세계적인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만들겠다"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공기업 등 누구나 금융을 활용해 핀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객들은 생활에서 쉽고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금융으로 연결된 핀테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눈 깜빡이면 결제 완료"

KB금융, 생체인증기술 활용 'KB핀테크 Day'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결제가 되는 생체인식 기술이 금융산업에 도입되고 있다.

26일 KB금융그룹은 이날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대강당에서 생체인증기술을 KB금융 계열사에 소개하기 위한 '제2차 KB핀테크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KB핀테크HUB센터가 지난 5개월간 접수한 생체인증 기술을 중심으로 금융권 최초로 부스시연을 겸한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맥과 홍채, 지문, 안면, 음성, 서명 등 6개 생체인증 분야 10개 업체가 참여해 기술소개와 질의응답, 시연을 보였다.



KB금융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금년 1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허용하면서 안면인식과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인증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생체인증분야는 고가의 인식 장비 때문에 금융에서 상용화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스피커, 마이크, 터치패드 기능을 통해 안면, 음성, 지문, 서명 인증이 추가 장비 없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도 금융권과의 다양한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빠른 성장이 기대되며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석한 KB금융 계열사의 한 직원은 "기술 시연 위주로 구성돼 이번 행사를 통해 생소했던 생체인증 분야를 이해하고, 계열사간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KB핀테크HUB센터는 'KB핀테크 Day'를 KB금융그룹과 핀테크 업체간 정기적인 행사로 진행하는 한편 계열사가 원하는 기술을 신속하게 소개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백아란 기자

우리카드, 추석 열차표 10% 할인이벤트

우리카드는 26일 추석 열차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달 10일까지 이벤트에 등록한 고객은 추석 열차승차권 이용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차권은 내달 6일까지 우리카드로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회원당 1회에 한해 최대 5000원까지 할인된다.

한편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은 내달 1일 경부선, 동해남부선, 충북선 등을 시작으로 2일 호남선, 장항선, 전라선 등이 판매된다. /백아란 기자



신안산선 뚫린다… 수도권 서남부 '들썩'

안산·화성 등 수혜지 꼽혀 중개업소 상담문의 늘어나

정부가 그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신안산선 철도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수도권 서남부 일대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여의도~광명역~안산 한양대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1구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 구간이 오는 2023년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1시간 3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이어 현재 개발중인 서해선 복선전철(홍성~화성 송산)과 부천 소사~안산 원시 복선전철 구간과 모두 연결될 예정이다.

신안산선 수혜지역으로는 안산과 시흥, 화성 등이 꼽힌다.



신안산선의 대표적 수혜지역에서 분양한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 방문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실제 지난 12일 청약을 진행한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의 경우 특별공급을 제외한 493가구 분양에 총 2403명이 접수해 평균 4.9대 1로 1순위에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대우건설이 안산 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하철 4호선과 신안산선이 환승되는 중앙역 역세권 단지다. 현재 이 단지는 27일까지 지정계약을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안산 선부동에 분양한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도 최근 진행한 청약에서 1600가구 아파트와 440실 오피스텔 모두 순위 내에 청약을 마감했다. 이 단지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석수골역(가칭)이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대표적인 신안산선 수혜 단지다.

앞으로도 신안산선 수혜지역의 분양은 지속될 전망이다.

신안산선 광명역이 들어서는 광명역의 경우 GS건설이 오는 10월 '광명역 파크자이 2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5㎡ 아파트 1005가구, 전용면적 21~37㎡ 오피스텔 432실 등 총 1437가구 규모다.

태영건설도 인근에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 주거 복합단지 '엠시에타'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아파트 1700가구와 오피스텔 2142실 등 총 3842가구로 구성됐다.

서울에서는 롯데건설이 신안산선 독산역 인근에서 오는 9월 '롯데캐슬 골드파크 타워 960' 오피스텔(960실)을 공급한다.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안산의 경우 그간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며 "신안산선 착공 계획에 따라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투시도. /대림산업 제공

강남생활권·단지 고저차 특화설계 매력

대림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대림산업은 28일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옥수13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25개동, 총 1976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84㎡ 66 가구 ▲115㎡ 46가구 ▲테라스하우스(107㎡) 2가구 등 총 114가구다.

인근 동호대교 이용하면 압구정까지 5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을 통해 종로까지 10분대, 강남까지 5분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전통적인 명문 초등학교인 동산초, 리라초가 인접해 있다. 금옥초, 동호초, 옥수초, 옥정초중교와 동국대, 한양대도 가깝다.

매봉산공원, 응봉근린공원, 남산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강남의 이마트와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삼성미술관, 순천향대병원 등 문화·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에는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오렌지로비가 설치된다. 노약자, 장애인도 안전하게 로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출입구 단차를 없애고 공동 현관과 1층 세대 입구를 분리해 1층의 사생활을 보호했다. 전 가구에는 우물천정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단지별 고저차를 활용한 설계로 저층 가구의 개방감을 확보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가족운동실,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와 주민회의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대림산업 분양관계자는 "옥수동에는 대형사의 브랜드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이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준강남권이라는 뛰어난 입지에 단지 고저차를 이용한 특화 설계와 대림산업만의 평면이 적용된 만큼 우수한 청약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양일정은 오는 9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과 4일 각각 1,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일이며, 계약은 15~17일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539-8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산·바다·골프장… 자연친화 멀티조망권

GS건설 '거제오션파크자이'

내일 견본주택 오픈 분양 돌입 전용 84·115㎡ 783가구 규모

GS건설은 오는 28일 경남 거제에서 '거제오션파크자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거제뷰골프장 내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상 20층, 11개동, 총 78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4㎡ 710가구와 115㎡ 73가구로 구성됐다.

전용84㎡는 A·B 두 개 타입으로 설계됐다. 두 타입 모두 환기와 채광이 우수한 4베이(bay)평면으로 구성됐다. A타입은 3면 발코니 확장과 알파룸을 제공한다. B타입은 알파룸과 팬트리가 제공돼 넓은 공간과 다양한 수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용 115㎡는 단일 타입으로 4.5bay에 방4개와 팬트리, 창고, 알파룸, 드레스룸 등으로 구성됐다.



'거제오션파크자이' 조감도. /GS건설 제공

이밖에 주방공간 동선을 배려한 대면형 주방 설계와 현관 공간 활용을 최적화한 현관 3면 수납공간이 배치됐다. 전면 발코니는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북쪽에는 약 17만평, 35만그루의 편백휴양림이 있다. 남쪽에는 18홀 규모의 거제뷰 골프장이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옥산동 일대는 사곡산업단지, 삼성중공업, 고현동 중심타운까지 차로 5~10분 거리다.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상동동~거제면 명진리)가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이다. 김천과 성주·고령·합천·진주·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오는 2016년에 착공될 계획이다.

김현진 GS건설 거제오션파크자이 분양소장은 "이 단지는 산과 바다, 골프장 등 멀티 조망권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아파트"라며 "최근 골프장 내 주거시설의 가치와 전망이 밝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온 후 국내 1호 단지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추후 분양 일정은 오는 9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과 4일 각각 1,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이어 10일에는 당첨자를 발표하고 15~17일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남 거제시 상동동 258-3 대동아파트 입구에 들어선다. 입주는 오는 2017년 6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9월 분양물량, 최근 3년 평균 3배

전국 6만6110가구

다음달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이 최근 3년 동월 평균(2만2696가구)의 세 배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전국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6만6110가구다. 이는 올해 최대 물량이다.

이 기간 수도권에서는 전월 대비 2만7130가구 증가한 4만627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미' 751가구 ▲'래미안에스티지S' 593가구 ▲'e편한세상신금호' 1330가구 ▲송파 '헬리오시티' 9510가구 등 총 1만4685가구가 분양한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 'e편한세상(A-45 블록)' 1526가구 등 3만 363가구가 공급된다. 인천에서는 남동구 서창동 '인천서창(2 블록)' 1,22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전월 대비 149가구 증가한 총 1만9834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4501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세종(3315가구) ▲강원(2124가구) ▲경남(1908가구) 순이다. /김형석 기자

중국인들 '갤럭시폰' 내려 놓는다

프리미엄폰 애플에 밀리고
중저가폰 샤오미에 치이고
삼성전자 점유율 내리막길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사업 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프리미엄은 물론 중·저가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약화되면서다. 스마트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삼성전자 중국사업 전체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와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계속 내리막길이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스틱스(SA)·IHS테크놀로지에 따르면 한 때 20%를 웃돌던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올해 2분기에 9~7% 수준까지 떨어졌다.



갤럭시노트5 /삼성전자 제공

스마트폰의 부진과 맞물려 삼성전자의 중국매출도 급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중국판매법인(SCIC)은 매출 2조7516억원, 영업손실 1840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삼성전자의 중국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1383억원, 1316억원이었다. SCIC가 적자전환한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3분기 만이다.

업계는 SCIC 부진의 핵심 원인을 스마트폰 사업에서 찾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에, 중저가 시장에서는 샤오미·화웨이 등에 밀리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선 갤럭시S6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A·E·J 시리즈도 멀어진 소비자들의 시선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에서는 차별성이, 중저가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브랜드 파워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며 "중국시장에서의 마케팅과 판매 전략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3·4분기에도 중국시장에서 반전을 노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략형 스마트폰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를 출시했지만 경쟁사들도 속속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애플은 다음 달 아이폰6S·아이폰6S플러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샤오미는 10만원대 패블릿(대형 스마트폰) 홍미노트2를 내놓았고, 화웨이는 메이트 7S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1번 충전으로 100㎞ 간다!

삼성SDI
전기자전거 배터리팩 개발

삼성SDI(대표 조남성)가 한 번 충전으로 10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용 배터리 팩을 26일 공개했다.

삼성SDI는 이날부터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에서 열리고 있는 '유로 바이크 2015 전시회'에 참가해 다양한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다.

유로바이크 전시회는 전세계 54개국 1300여개의 자전거 부품 회사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전거 전시회다.

삼성SDI는 2012년부터 4년째 참가하고 있다.



26일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에서 열린 유로바이크 삼성SDI 전시 부스에서 홍보모델이 500Wh 배터리 팩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SDI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전거에 내장하거나 외부에 장착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6종의 배터리 팩을 포함해, 현재 글로벌 자전거 업체에 공급 중인 12종의 배터리 팩과 다양한 셀을 함께 전시했다.

배터리 팩에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가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배터리 잔량, 주행가능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기술도 소개했다.

삼성SDI가 최초로 공개한 500Wh 배터리 팩은 삼성SDI의 고용량 셀과 팩 기술을 적용해 슬림한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저장능력은 극대화시켜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춘천까지 거리인 100㎞를 달릴 수 있게 했다.

삼성SDI는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고용량 배터리 팩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LG전자 모델이 HDR 적용 올레드 TV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더 어둡게, 더 밝게… LG 올레드TV 업그레이드

HDR 적용 생생한 화면 구현

LG전자는 HDR(High Dynamic Range)을 적용한 올레드 TV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HDR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밝은 곳은 더욱 밝게 표현하는 기술로 한층 생생한 화면을 구현한다.

올레드 TV는 각각의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뒤에서 빛을 비춰줘야 하는 LCD TV와 달리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다. 이 같은 올레드 TV의 독보적인 강점 때문에 올레드 TV는 HDR 기술에 최적화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HDR 적용 울트라 올레드 TV는 제품 두께가 스마트폰보다 얇은 4.8㎜에 불과하다.

LG전자는 3종의 HDR 적용 울트라 올레드 TV를 포함해 총 4종의 울트라 올레드 TV 신제품을 선보인다. 한층 강화된 울트라 올레드 TV 라인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울트라HD TV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HDR을 적용한 울트라 올레드 제품을 이달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 세계 시장에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내달 4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국제가전박람회(IFA) 2015에서 HDR을 적용한 올레드 TV 등 다양한 올레드 TV를 전시한다. /임은정 기자 eunj71@

"귀는 호강하겠네~" 삼성 무선오디오 3종 공개

터치형 탭 등 고객요구 반영

삼성전자는 무선 360 오디오의 신제품 3종을 다음달 4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국제가전박람회(IFA) 2015에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선보이는 무선 360 오디오 신제품은 기기 상단에 터치형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원통형 디자인의 'R5', 'R3', 'R1' 3종이다.

이번 제품 상단에 채용된 터치형 인터페이스는 두드리는 탭, 쓸어 넘기는 스와이프 등 직관적으로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감상할 음악을 선택하고, 음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360도 전 방향으로 고음질의 음향을 내면서 사운드 왜곡을 줄이는 '링 라디에이터' 기술도 적용됐다.

'R5', 'R3', 'R1'은 무선 360 오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삼성 멀티룸 오디오'를 지원해 모바일 기기로 '휠'을 돌려 음악을 탐색하고, 재생 중인 노래의 앨범 재킷의 색에 따라 스크린의 색도 변한다. 동일한 음원을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재생하거나, 여러 개의 음원을 각기 다른 기기에서 재생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R5', 'R3', 'R1' 3종



삼성전자 모델이 360오디오 신제품 'R5', 'R3', 'R1'(왼쪽부터)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을 올해 하반기 한국,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국가별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 세계에 출시할 예정이다. /조한진 기자 hjc@

구형 냉장고 주면 신형 냉장고 준다

삼성전자 보상 이벤트

삼성전자는 셰프컬렉션(사진)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냉장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보상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상 판매 이벤트는 광복 70주년 '힘내라, 대한민국' 감사 대축제의 일환으로 내달 30일까지 셰프컬렉션을 구매하고 구형



냉장고를 반납하는 고객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김치냉장고를 제외한 100ℓ 이상의 모든 냉장고는 브랜드나 제조일자에 상관없이 반납 가능하며 동일기간 내 지펠 T9000 특별 기획 행사 모델을 10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임은정 기자

소리없이 강한 힘… 비바람 뚫고 고속질주 거뜬

시승기

쉐보레 '트랙스 디젤'

속삭이는 디젤 별명 생겨 연비 14.7km/ℓ에 135마력



쉐보레 트랙스 디젤은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힘이 인상적이다.

1.6ℓ의 4기통 엔진은 최고출력 135마력, 최대토크 32.8kg·m의 힘을 낸다. 이는 경쟁사 모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시승행사가 진행된 25일은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제법 거셌지만 치고 나가는 힘이 좋았다.

가속 시 발생하는 소음도 거슬리지 않았다.

트랙스에 장착된 독일 오펠사의 디젤엔진은 'Whisper Diesel(속삭이는 디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풍절음도 최소화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리어스포일러, 소음을 차단해주는 유리 등을 적용해 정숙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해안도로가 포함된 인천시 운서동의 네스트호텔 인근 30㎞를 달린 후 나온 연비는 12.5km/ℓ였다.

트랙스 디젤의 복합연비는 14.7km/ℓ, 고속주행연비는 16.4km/ℓ, 도심주행연비는 13.5km/ℓ다.

6단 자동변속기는 변속기 내부 효율을 기존 모델보다 20% 개선했다.

트랙스 디젤의 18인치 알로이 휠에는 콘티넨탈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된다.

인테리어는 심플하다. 적응하고 기능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필요한 조작버튼을 최소화했다.

계기판(클러스터)도 한눈에 들어왔다. 6개의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은 트랙스 디젤의 정숙성과 만나 낮은 음량에서도 깨끗한 음질을 제공한다.

쉐보레 트랙스 차량에 적용된 마이링크 인포테이먼트 시스템을 스마트폰과 연계하면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내비게이션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추세인 시동버튼을 채택하지 않아 열쇠로 시동을 걸어야 하는 부분은 아쉬웠다.

또 헤드라이트·리어라이트에 LED(발광다이오드)가 적용되지 않아 최근 젊은 운전자의 취향에 뒤처진다는 점과 시인성이 떨어지는 점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트랙스 디젤에는 6개의 에어백이 운전석, 동반석, 앞좌석 사이드와 측면 커튼 등 곳곳에 설치됐다.

트랙스는 2013년 출시 당시 국토교통부 주관 신차안전도 평가에서 올해의 가장 안전한 차에 선정된 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2015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된 바 있다. 트랙스 디젤의 가격은 사양에 따라 2195만원부터 2495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인천=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대한항공, B747-8i 차세대 항공기 국내 첫 도입

효율성 높고 소음·탄소 저감

대한항공이 B747-8i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전날 미국 시애틀 소재 보잉 에버렛 딜리버리 센터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레이 코너 보잉 상용기 부문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B747-8i 1호기를 인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 B747-8i.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이번 B747-8i 도입으로 B747-8 기종의 여객기(B747-8i)와 화물기(B747-8F)를 모두 운영하는 항공사가 됐다.

B747-8i는 연료 효율성은 한층 높이고 소음과 탄소는 저감한 차세대 항공기다.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은 점보기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B747-8i 도입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항공기의 도입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항공기를 포함해 올해 4대의 B747-8i를 도입한다.

2017년까지 총 10대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용기 기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30주년 기념식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하 HIS)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반포동 세빛섬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25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바질 보툴라스 히타치 데이터 시스템즈 아시아태평양 세일즈 운영 부사장, 조현상 효성 부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 마크 애블릿 히타치 데이터 시스템즈 아시아 태평양 총괄부사장, 전홍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대표이사, 김봉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공공1팀장이 참석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박삼구 위원장, 한중 관광 우호교류단 행사 참석

박삼구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이 25~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문화관광 우호교류단' 행사에 참석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앞장섰다.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금호산업 인수라는 그룹 내 중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한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교류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주관, 중국 국가여유국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2015-2016 한중 관광의 해'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문체부와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민간기업 관계자 등 약 500명이 방중해 중국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교류 시간을 가졌다.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우호교류의 밤' 행사를 기념해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왼쪽부터),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삼구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김종 문체부 차관, 리진자오 중국국가여유국 국장, 왕샤오펑 중국국가여유국 부국장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25일에는 베이징 국무호텔에서 '한중 우호교류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 문체부 제2차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 리진자오 중국 국가여유국장,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중 양국의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한국 관광과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알렸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한국방문위원장으로 위촉돼 '2016-2018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한국관광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중국 난닝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국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0차 한중 재계회의'에도 참석해 한국 관광산업 발전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썼다. /정용기 기자

현대차, 신형 아반떼 사전계약 실시

9월 초 출시 예정

현대자동차는 9월 초 출시 예정인 신형 아반떼의 사전 계약을 전국 영업점에서 26일 시작했다.

사측에 따르면 신형 아반떼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6세대 모델이다.

▲후방감지 레이더를 통해 사각 지대 및 후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 경보하는 스마트 후측방 경보시스템 ▲스마트키를 지닌 채 차량 뒤쪽으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트렁크 문이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 ▲광시야각 및 고휘도로 주·야간 시인성을 향상시킨 8인치 와이드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등을 채택했다.



현대차 신형 아반떼 내장 렌더링.

또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높이고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7 에어백을 적용했다.

현대차는 서스펜션 구조와 전동식 조향장치를 조정해 안정성과 조향감을 확보했으며, 흡차음재 확대 적용을 통해 정숙성과 안락한 승차감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해외 사업장 챙긴다" 최태원, 글로벌 현장경영

경제활성화·위기극복 위해 글로벌 현장 강행군
굵직한 생산공장 있는 중국·대만 첫 출장지로

26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이 선택한 첫 글로벌 현장은 중국과 대만 등 범 중화권 핵심 거점이다.

최 회장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고 SK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확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했다. 기존 사업을 다지고 새로운 사업을 넓힐 지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의 이번 출장은 글로벌성장위원장인 유정준 SK E&S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그리고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등이 일정별로 동행한다.

우선 최 회장은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장쑤성에 있는 SK하이닉스 우시공장을 방문한다. 이천 SK하이닉스 M14 준공식 바로 다음날 우시공장부터 찾은 것은 이 공장이 SK하이닉스 전체 D램 생산량의 50% 가량을 담당할 만큼 중요한 생산기지이기 때문이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은 SK하이닉스가 지금과 같은 규모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우시공장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았다"면서 2박3일 동안 공장 곳곳을 둘러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은 우시공장 임직원들이 지난 2013년 9월 발생한 화재에 혼연일체가 돼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화한 데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또 우시를 둘러싼 장강 삼각주가 중국 GDP의 21%를 차지할 만큼 산업 거점일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쑤성 및 우시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SK그룹 제공

각각 갖고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이어 최 회장은 28일 후베이성 우한시로 이동해 SK종합화학과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Sinopec)이 합작 설립한 우한 에틸렌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한 에틸렌 공장은 총 투자비 3조3000억원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다. 현재는 나프타분해설비(NCC) 등에서 에틸렌을 비롯해 총 연산 약 250만톤의 유화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 회장이 7년간 공을 들인 끝에 성사된 대표적 글로벌 사업인 우한 에틸렌 공장은 지난해 초 상업생산을 시작한 첫해부터 이례적으로 23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본궤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68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의 7배에 달할 만큼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중국에 이어 대만에서 글로벌 현장경영을 한 뒤 내달 초 귀국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지난해 6월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차원에서 대만 홍하이그룹과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SK㈜는 지난 5월 홍하이그룹과 IT 서비스 합작법인(JV) 'FSK Holdings'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부터는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핵심 영역별 사업과 기술 지원 TF를 가동, 팍스콘 충칭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홍하이그룹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링은 홍하이그룹과의 합작이나 우한 에틸렌공장 가동과 같이 해외 글로벌 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사빅 △일본 JX홀딩스 △터키 도우쉬 그룹 등과 제휴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우 SK그룹 PR팀 부사장은 "최태원 회장은 1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 사업현장에 머물며 굵직한 해외사업들에서 성과를 거두겠다고 공언할 만큼 글로벌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앞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와 SK의 위기극복과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사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다음카카오, 청·장년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다음카카오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청·장년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26일 경기도 성남의 공단 본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의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이 없게 접근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오던 다음카카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함께 청년·장년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올 하반기부터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도 추진한다.

다음카카오는 장년 장애인 고용을 위해 IT분야 '장년장애인 디지털 환경지킴이' 중심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신구세대 간 통합을 추구할 예정이다.

장년장애인 디지털환경지킴이는 디지털 유해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26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경기도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 위치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전시장인 '해피스페이스'를 관람하며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다음카카오 제공

고자 인터넷의 개인정보,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지우고 모니터링 직무 수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회사형장애인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다. 장년 장애인 중심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은 다음카카오가 최초다.

/정문경 기자

SKT, 인터넷전문은행 출사표… 컨소시엄 참여

가입자 기반 빅데이터 활용 금융서비스 수준 올라갈 것

SK텔레콤은 26일 첨단 ICT 기술력 등 보유 R&C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결정하고, 현재 인터파크 등이 포함돼 있는 컨소시엄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통신, 커머스(인터파크), 은행(IBK기업은행), 증권(NH투자증권), 유통(GS홈쇼핑), 지급결제(NHN엔터테인먼트), 핀테크(옐로금융그룹), 서민금융(웰컴저축은행)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참여한다.

컨소시엄이 만들고자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의 모든 생활영역에 존재,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는 '디지털 라이프 뱅크'다. 즉 고객이 돈을 쓰고, 돈을 모으는 모든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의 2800만 가입자를 기반으로 하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금융대출과 차별화된 중금리 대출 등을 통해 서민금융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고객 니즈 충족과 동시에 금융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인터파크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컨소시엄은 참여하는 각 사가 보유한 고객 생활영역에서의 데이터를 통해 고객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대출, 개인맞춤형 자산관리, 결제 등의 부분에서 실제 소비자들의 효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만들겠다"며 "예를 들면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DB를 모아 보면 약 3000만명에 근접해 대한민국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거의 모든 고객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LGU+, 상용망서 산업용 IoT 단말 첫 시연

LG유플러스가 VoLTE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단말기를 노키아와 함께 상용망에서 시연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용 IoT 단말기는 소량의 데이터 전송에 특화한 별도의 통신망을 사용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이번에 기존 LTE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해 단말기를 연결했다.

LG유플러스는 소형, 저비용, 저전력으로 VoLT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 단말기를 상용화하면 엘리베이터 관리, CCTV 관제, 재난 감시 등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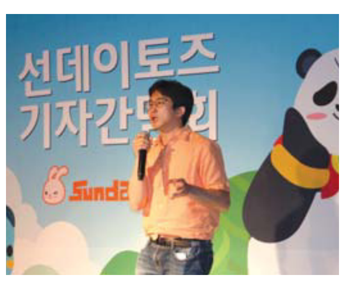
이상민 LG유플러스 전무는 "LTE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데이터 트래픽과 기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선데이토즈 '상하이 애니팡·애니팡 맞고'로 전환기 맞는다

국민 모바일 게임 '애니팡' 개발사 선데이토즈가 상하이 애니팡, 애니팡 맞고, 애니팡 글로벌 등 하반기 신작 3종을 발표하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것을 다짐했다.

26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열린 선데이토즈 하반기 신작발표 간담회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는 "신작 발표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의 성장에 머물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좋은 게임을 개발, 서비스 하는 성장한 선데이토즈의 전환점을 약속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열린 선데이토즈 하반기 신작발표 간담회에서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가 발표 중이다. /선데이토즈 제공

이 대표는 "다음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웹보드 시장 개척은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최고의 캐주얼 게임 서비스, 유통 환경을 구축해 모바일게임의 대중화를 한 차원 높이는 신시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선데이토즈는 '상하이 애니팡', 가칭 '애니팡 맞고', 가칭 '애니팡 글로벌' 등의 모바일게임을 하반기 출시 기대작으로 공개했다. 하반기 첫 출시작인 모바일 퍼즐 게임 '상하이 애니팡'은 다음달 8일 카카오게임하기 플랫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애니팡 맞고'는 현재 다음카카오와의 제휴를 맺고 개발에 착수했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문경 기자

中企 화장품, 홈쇼핑 업고 안방시장 공략

브랜드 홍보엔 효과적
낮은단가·기획구성 등
수익성 기대는 힘들어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TV홈쇼핑을 통해 안방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과 같은 화장품 대기업이나 주요 브랜드숍 화장품 업체들이 로드숍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TV를 통해 브랜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 화장품 업체 아미코스메틱이 전개하는 비알티씨(BRTC)는 지난해 12월부터 홈앤쇼핑을 통해 22차례에 걸쳐 '바이탈라이저 화이트닝 슬리핑 팩' 방송을 진행했다. 일명 '비타민 수면팩'으로 불리는 해당 제품은 올해 7월까지 홈쇼핑에서 총 34만 개가 판매됐다.

비알티씨는 TV홈쇼핑 외에 온라인쇼핑몰·드럭스토어 등으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TV홈쇼핑 채널에 집중하고 있다. 이달 30일에는 신제품 '프리미엄바이탈라이저화이트닝앰플팩'을 NS홈쇼핑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TV홈쇼핑은 신상품 론칭 채널로도 적극 활용된다.

MJ코리아의 끌레드벨은 지난 2007년부터 TV홈쇼핑을 통해 꾸준히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신제품 '스노우 셀 크림'으로 GS홈쇼핑에서 두 차례 방송을 진행했다. 6월 2차 방영 후 판매율은 지난 4월 첫 방송 대비 300% 가량 급증했다.

중소 화장품 업체가 TV홈쇼핑 판매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단기간 매출뿐만 아니라 브랜드 홍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을 통해 제품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생소한 브랜드의 경우 제품 자체로 승부하기에 좋은 판매처로 꼽히고 있다.

조성아22와 같이 TV홈쇼핑에서 이름을 알려 유통망을 확대한 성공 사례가 있다는 점도 중소 화장품 업체의 TV홈쇼핑 론칭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 홈쇼핑 판매 제품은 낮은 단가와 기획 상품 구성으로 인해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 끌레드벨은 단품으로 7만5000원 상당의 스노우 셀 크림을 홈쇼핑 방송에서는 스노우 셀 크림 정품 2개와 토너·로션·화이트닝 아이크림·화이트닝크림 등을 각 1개씩 구성해 7만9000원에 판매했다.

단기적 판매일 뿐 꾸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홈쇼핑 방송은 가격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남는 구조는 아니다"며 "수익 보다는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 해외에 수출하고 면세점 등으로 유통망을 넓힐 수 있어 홈쇼핑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쿠팡 오픈마켓 진출… '자충수' 될까

'상품수 늘리기 전략' 논란



쿠팡(대표 김범석·사진)이 오픈마켓 분야까지 진출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나섰다.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란 쿠팡 측의 진출 취지와 달리 관련 업계는 '상품수 늘리기' 전략이라는 평이다. 또 오픈마켓 진출로 인해 쿠팡이 스스로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쿠팡은 큐레이션·리테일 서비스 이어 오픈마켓 형태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9월 중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쿠팡 측은 오픈마켓 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전자상거래 채널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형태의 이커머스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쿠팡이 상품 수를 늘리기 위해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해 '들러리'들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또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은 기존 쿠팡의 주력 상품과 달리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상품 사업자가 지게 된다.

기존 쿠팡의 상품 판매 방식은 상품을 직매입해 '로켓배송'을 통해 배달까지 책임지는 방식이었다. 상품의 하자는 물론 배송 도중에 생긴 문제까지 모두 쿠팡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왔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로켓배송의 불법운송사업 논란에도 여론은 쿠팡의 편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마켓플레이스는 오픈마켓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쿠팡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 같은 쿠팡 내에서 구입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쿠팡의 주력 상품이 아닌 마켓플레이스 상품은 차별된 서비스를 받는다. 모든 책임은 중소사업자가 직접 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자충수를 뒀을 수도 있다"며 "쿠팡의 최대 장점은 상품의 주문부터 배송까지 책임지는 서비스였다. 하지만 오픈마켓 확장으로 인해 오히려 책임진다는 이미지가 하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 등록만 했을 뿐"이라며 "오픈마켓의 형식은 그대로 가져왔지만 우리의 주된 목적은 책임이 결여된 상품 수 늘리기가 아닌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minus@



추석 상품권 패키지 '에이치 노빌리티'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은 17일부터 전국 14개 점포에서 추석 상품권 패키지 '에이치 노빌리티(H-Nobility)'를 판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는 전국 15개 점포에서 200만~3000만원 이상 '에이치 노빌리티'를 구매한 고객에 한해 구매금액의 0.5%~3%을 상품권이나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백화점, 메르스 영향 벗어나나

백화점업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여파에서 벗어나 7월 매출 회복에 성공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의 7월 매출은 신규점포를 포함해 전년동기대비 10.1% 상승했다.

상품군별로는 스포츠가 22.1%로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고 레저 18.2%, 컨템포러리 14.2% 등의 신장세를 보였다. 신규 점포를 제외한 기존 점포 기준으로 7월 매출은 3.6% 늘었다.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의 7월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2% 신장했다.

수영복이 14.9%, 선글라스가 13.3% 신장하는 등 바캉스 상품이 호조를 보였다. 해외패션은 9.1%, 에어컨·선풍기 등 가전제품은 8.9%, 여성캐주얼은 8.7% 신장했다.

갤러리아백화점(대표 황용득)의 7월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했다.

AK플라자(대표 정일채)의 7월 매출은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6월 매출 신장률이 전년 대비 –18.1%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회복된 수준이다. 가정용품이 15% 신장해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이날 발표한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0.7% 상승했다.

전년보다 11.9%나 줄었던 6월 매출에 비해 메르스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반등했다. 산업부는 판매 촉진행사 등으로 생활가전과 해외 유명 상표의 판매가 증가하며 7월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추석에 가장 받고싶은 선물은?"

받고싶은 선물 1위 '한우'

'한우'가 한가위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로 꼽혔다. 선호하는 선물 가격대는 5만~10만원대이며 추석 선물은 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농협유통(대표 조용조)은 한가위를 앞두고 선호하는 선물과 선물 가격대·구입 시기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한우가 2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상품권(25%), 과일(15%) 순이다.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한우(24%), 과일(21%), 상품권(15%) 순으로 약간의 순위 변동만 있을 뿐 품목은 같았다.

매일유업 오픈 골프대회 '애플TV' 생중계

매일유업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대전유성CC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매일유업 오픈 2015' 대회를 'JTBC골프' 채널 뿐 아니라 '애플TV'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애플TV 단말기를 갖고 있거나 아이폰에 '코티비(KORTV)' 앱을 설치한 시청자는 미국·일본 등 220여 개국 어디서나 이 대회를 시청할 수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대회 중계사인 JTBC골프와 협의를 거쳐 'JTBC-애플TV' 이원 생방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애플TV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2700만대가 보급됐으며 현재 매월 100만대 이상 팔리고 있다.

롯데, 지배구조 개선 TF 발족

팀장에 이봉철 부사장
경영 투명성 강화 착수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사진)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고 경영투명성 강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롯데그룹은 26일 이봉철 롯데정책본부 지원실장(부사장)을 팀장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 TF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TF팀은 이 부사장을 중심으로 그룹과 계열사 재무담당 임원, 법무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 20여 명이다.

여기에 외부기관인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김&장, 율촌 등이 참여해 자문과 감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점추진과제는 호텔롯데 IPO(기업공개),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투명성 제고 등 4가지다. /박상길 기자

CJ오쇼핑, 하반기에만 브랜드 30개 론칭

CJ오쇼핑(대표 김일천)은 가을겨울(F/W)시즌 패션 카테고리를 전면 개편하고 하반기에만 30개의 브랜드를 론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CJ오쇼핑은 'SK네트웍스', '시선인터내셔널' 등 패션 전문 기업과 손잡고 '와이앤케이'와 '칼리아'를 단독으로 선보인다. 또한 해외 고급 편집숍 중심으로 판매되던 해외 유명 브랜드 '샬라얀', '에스기비엔' 등을 단독 론칭한다.

공영홈쇼핑, 개국 첫달 223억원 실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식품 판매 전문 홈쇼핑 채널인 공영홈쇼핑의 개국 첫달(7월 14일~8월 20일) 판매실적이 223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은 125억원으로 56%를 차지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판매실적은 각각 66억원(30%), 21억원(14%)이었다.

갤러리아百 'FESTA, 9월 축제의 시작'

개점 36주년 기념
내달 6일까지 경품 행사

갤러리아백화점(대표 황용득)은 28일부터 9월6일까지 개점 36주년을 기념해 'FESTA, 9월 축제의 시작' 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갤러리아 명품관과 수원점을 포함한 전 지점에서 당일 영수증 1건 기준 5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LG생건, 시트세제 50만개 판매 돌파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시트 형태 세탁세제 '테크 베이킹소다 담은 한 장 빨래'가 출시 7개월 만에 5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테크 베이킹소다 담은 한 장 빨래'는 한 장씩 사용하는 시트 형태의 획기적인 편의성을 바탕으로 쉽고 간편하게 빨래하길 원하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탔다.

지난 1월 출시 이후 1분당 1.6개 꼴로 판매되면서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50만 개를 넘어섰다.

이젠 올리브유도 '프리미엄' 시대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해선)이 '프리미엄 올리브유'를 앞세워 고급 식용유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CJ제일제당은 26일 '이탈리안 올리브유'와 '안달루시아산 퓨어 올리브유'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안달루시아산 올리브유'를 출시한지 약 2년 만의 신제품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현지에서 생산되어 고급 유리병 용기에 담긴 프리미엄 올리브유 제품이다.

男 패션 키워드 '도시감성'

밴드 처리한 팬츠 등
신사복에 아웃도어 접목
기능성·편안함 등 강조

제일모직(패션부문 대표 윤주화)은 가을겨울(F/W)시즌 남성복 키워드를 '어반 유틸리테리언(Urban Utilitarian·도시의 감성)'으로 정의했다.

겉보기엔 울소재 정장 같지만 아웃도어 식으로 봉제 기술을 적용하고 발수와 방풍, 투습 기능까지 더했다. 갤럭시의 사르토리알 테크 라인이 대표적이다.

최영진 삼성패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6일 "도시적인 감성과 아웃도어의 기능성을 모두 갖춘 아이템과 스타일링이 중요해지고 울코튼·스웨이드 등 천연 소재를 기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도시와 아웃도어를 아우를 수 있는 상품이 눈길을 끌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복에 '고(高) 기능성' 더해지다

제일모직은 지난해 남성복이 스트레치 정도의 기능성을 강조했다면 올해 F/W시즌에는 보온성과 활동성, 편의성을 두루 갖추는 동시에 리버서블(Reversible) 형태나 탈부착·레이어드(Layered; 겹쳐입기) 스타일 등 TPO(시간·장소·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품들의 조화가 주를 이룰 것으로 분석했다.

제일모직의 갤럭시는 고기능의 하이테크 소재와 기능성 아웃도어의 봉제기술을 접목한 '사르토리알 테크(Sartorial Tech)' 라인을 출시했다. 발수와 방풍은 물론 투습 기능이 있다.

빨질레리는 포멀한 감성과 고기능 봉제기법의 기능성을 적용, 차별화된 스포티즘을 강조한 아방 크래프트(Avant Craft) 라인을 출시했다.

봉제선없이도 다운을 봉제해 깃털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웰딩(Welding) 기법과 봉제선에 방수 테이프를 부착해 완전 방수 봉제를 가능케하는 심실링(Seam Sealing) 기법을 동시에 적용했다.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물·바람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기능적인 부분을 강화했다.

슈트도 기능성으로 무장했다.

발수·방오는 물론 합성 보온 소재인 써모라이트(Thermolite)와 발열안감 소재로 보온까지 신경 썼다. 또 팬츠의 양쪽 옆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일래스틱 밴드로 처리해 착용감을 대폭 개선한 상품들이 출시됐다.



빨질레리는 고기능성·스포티즘을 강조한 아방 크래프트 라인을 출시했다. /제일모직 제공

이현정 갤럭시 디자인실장은 "현대적인 코드와 재해석된 클래식 무드를 기반으로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아웃도어의 전유물이었던 기능성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길어지고 넉넉해진 코트

제일모직의 F/W 시즌 코트는 전반적으로 보온성은 높아졌고 얇고 가벼워진 것이 특징이다. 넉넉한 오버코트를 중심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퍼 라이닝(Fur Lining; 모피의 안감을 덧댄 것) 형태다.

갤럭시는 코쿤 스타일로 둥글고 소프트한 어깨를 강조하는 한편 부자재의 경량화를 바탕으로 부드럽고 맵시 있는 실루엣을 강조했다. 또 천연소재의 외관을 구현한 자카드와 울·캐시미어·실크 등의 혼방 소재를 사용해 천연 느낌의 자연스런 외관에 중점을 뒀다.

올해 코트는 길이와 볼륨감이 관건이다.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길어진 오버사이즈 코트가 클래식한 라펠(Lapel; 코트·재킷의 앞몸판이 깃과 하나로 이어져 접어 젖혀진 부분)과 볼륨감 있는 실루엣으로 출시됐다.

이하나 로가디스 컬렉션 디자인 실장은 "효율성과 활용도를 중시하는 아이템들이 주목 받으면서 날씨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아이템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네이비·차콜그레이 컬러의 오버사이즈 코트와 퍼·다운 상품과의 레이어드 스타일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인도 뉴델리 2번째 초코파이 공장 본격 가동

롯데제과, 26일 준공식
신동빈·인도대사 등 참석
중동 등 시장 확대 할것

롯데제과(대표 김용수)가 인도 북부 뉴델리에 2번째 초코파이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롯데제과는 26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제과 김용수 대표, 정책본부 황각규 사장, 중앙연구소 여명재 소장 등 롯데그룹 임직원과 마노하르 랄 까따르 하리아나주 주지사, 이준규 주 인도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뉴델리 초코파이 공장은 인도 북부 뉴델리 하리아나주에 있으며 대지 2만3000평, 연 면적 7500평, 연 생산 능력 600억원에 달한다.

롯데제과는 약 700억원을 들여 2년여 만에 공장을 설립했다.

롯데제과는 뉴델리 공장을 완공함에 따라 2010년 남부 지역 첸나이에 설립한 초코파이 공장과 함께 인도 남북을 잇는 초코파이 벨트를 구축하게 됐다.

인도에서 롯데 초코파이 매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다. 2010년 550억원이었던 매출은 2014년 9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1000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롯데초코파이. /롯데제과 제공

2018년까지 매출 18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롯데제과는 이번 공장 확대로 인도뿐만 아니라 차후에 주변국과 중동, 아프리카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길 기자

‘小福’ 웨딩패키지 이벤트

스탠포드호텔

12월 예식 예정 커플 대상 선착순 패키지 할인 행사



/스탠포드호텔 제공

스탠포드호텔(총지배인 왕창근)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스탠포드호텔에서 12월 예식 예정자 선착순 10쌍을 대상으로 행복을 소복소복 쌓을 수 있는 소복(小福) 웨딩 프로모션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호텔 측은 이 기간 평일~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웨딩 예약 예비 신혼부부 고객에 한해 선착순으로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이 아닌 호텔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텔 측은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연말 결혼을 앞둔 예비고객을 위해 이번 패키지 프로모션을 마련하게 됐다.

패키지에는 클래식 웨딩을 위한 남성 4중창단 공연과 웨딩 코스 메뉴 식사(한식 갈비탕 또는 양식 등심스테이크 중 택1), 음료·주류, 꽃·장식, 폐백 음식이 포함된 상품 등이 들어있다.

또한 각종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객실1박(2인 조식포함)·인천공항 리무진 버스·대관료(150만원), 2부연출·폐백실·혼구용품(150만원)·결혼 1주년 기념 2인 식사권·웨딩 메뉴 6인 시식·웰컴 드링크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돌잔치 진행 시 식사 1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모든 할인 가격에는 V.A.T.가 포함됐다. 호텔 측은 프로모션 상품이라 중복 할인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패키지는 12월까지 평일과 주말 구분없이 일주일내내 진행된다.

호텔은 YTN과 MBC 사이에 위치해 있다.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서 택시로 5분, 버스로는 세 정거장 수준으로 비교적 가깝다. 호텔 측은 최근 실속 있고 알찬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교통 편리성과 다양한 혜택 제공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발 아닌 무릎통증 ‘거위발건염’ 주의보

부상에 취약한 무릎관절 무리한 반복운동 삼가야

대학생 김모씨(24)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400km 국토대장정을 다녀온 뒤부터 무릎통증을 앓았다. 장시간 걸었던 탓에 일시적인 후유증이 생긴 것으로 생각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만큼 증상이 심각해졌다. 병원을 찾은 김씨는 ‘거위발건염’ 이라는 생소한 진단을 받게 됐고 통원 치료는 물론, 일정 기간 이상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무릎 안쪽, 경골(정강이뼈)에는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내려온 3개의 힘줄이 붙어있다. 이 힘줄 모습은 마치 거위발의 물갈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위발건’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거위발건염’이란 이 힘줄과 무릎뼈의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거위발건염은 무릎을 굽혀 허벅지 뒷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육상 선수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무릎을 펴고 굽히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장시간 보행을 하는 등 무릎관절을 과하게 사용할 경우 발병 할 수 있다.



용인분당예스병원 라기항 원장.

또한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약해지고 무릎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있거나 당뇨와 비만이 있는 노인이라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 관절질환 특화 용인분당 예스병원 라기항 원장은 “보통 무릎 안쪽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연골 손상 증상과 비슷해 오인할 가능성이 많은데 통증이 심해지면, 압통과 붓기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통증으로 인해 걸음걸이의 변형이 올 수도 있다”며 “거위발건염을 방치할 경우 반월상 연골판이 자극을 받게 돼 퇴행성 관절염이 빠르게 올 수도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거위발건염 통증으로 걷기나 조깅이 힘들어지는 경우 충분한 휴식이 가장 좋고 냉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 된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때에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운동요법을 동반해 치료하기도 하는데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심각한 경우 점액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거위발건염은 자세와 생활습관에 의해서도 발병하는 질환이므로 운동 전 충분한 근육 스트레칭을 해주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운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무릎관절에 무리가 덜 가고 체중부하가 적은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중 걷기 등의 운동을 하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 관절 손상을 예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원장은 “무릎은 체중을 지탱하면서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부상에 가장 취약한 관절로 평상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통증이 지속되면 섣부른 자가 진단으로 무릎 부상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발병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이화의료원, 김승철·유경하 원장 취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24일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윤후정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과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새누리당 길정우 국회의원과 김용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 등 내외귀빈이 참여했다.

김승철 의료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여성암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2부속병원의 성공적 개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제하고, ‘미래 성장 동력 구축’,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 ‘윤리경영을 통한 대학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 실천’ 등 3가지 경영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김승철 의료원장은 “미래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해 ‘병원별 차별화된 특성화로 의료 서비스 역량 제고 및 대외 경쟁력 확보’, ‘연구 역량 강화와 연구 중심 병원 추진으로 미래 수익 기반 확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 제도나 규정, 비생산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마데카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후원

동국제약



동국제약 2014경주국제유소년축구대회.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은 ‘2015 경주 국제유소년(U-12)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 대표팀이 마데카솔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다고 밝혔다.

대표팀은 지난 17일 막을 내린 ‘2015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선보인 선수들로 구성된 화랑, 충무, 신라 3개 팀이 출전한다. 특히 ‘화랑’팀은 올해 4월 한국유소년축구연맹(KYFA)과 동국제약이 체결한 ‘유소년 상비군(대표팀) 후원 협약’에 따라 마데카솔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을 착용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경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식 인정하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이다.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경주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11개국 22개팀이 참가해 승부를 겨뤘다.

동국제약 담당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년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어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가 느껴진다”며, “축구 꿈나무들이 운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후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약은 2012년부터 한국유소년축구연맹에 마데카솔 등 구급용품 9종이 담긴 구급함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유소년축구연맹과 ‘유소년상비군(대표팀)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축구 꿈나무 육성 후원금과 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유소년 축구 대표팀은 국제대회에서 마데카솔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최치선 기자

건보공단,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캠페인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지난 달 22일, 8월12일에 이어 2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지역본부 소속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환승센터 주변 청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서울지역본부는 여의도 관내 시민에게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과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등에 대한 리플릿을 배부하며,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노력 등 주요 정책현안을 홍보했다. 또 공단관계자는 “윤리경영 실천 홍보물을 배부하며, 공정한 업무처리와 부패 방지와 청렴활동을 통해 클린공단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현명 기자

star bag



日 타워레코드 차트 1위

그룹 **비투비**가 지난 19일 일본에서 발매한 두 번째 싱글 '여름빛, 마이걸'이 일본 최대 규모 레코드사인 타워레코드에서 주간 세일즈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비투비는 현지에서 프로모션 활동을 하고 있다.

'K팝스타3' 출신 전격 데뷔



'K팝스타3' 출신 **짜리몽땅**(류태경·여인혜·이주연)이 다음달 4일 전격 데뷔한다. 짜리몽땅은 SBS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3'에서 뛰어난 보컬 실력과 하모니로 우승 후보로 꼽혔으나 아쉽게 탈락했다.

소극장 공연 추가 오픈



가수 **이적**이 소극장 공연 투어 '무대'를 추가로 오픈한다. 전주에서 추가 공연 1회를 더 진행한다. 8월 말 부천에서 시작하는 이번 투어는 대구, 김해, 용인, 전주, 수원, 안양, 부산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상파 드라마 첫 도전



가수 **조정치**가 KBS2 드라마 스페셜 '그 형제의여름'으로 지상파 드라마에 첫 도전한다. 하숙집에서 살고 있는 소설가 지망생 현철 역을 맡았다. 90년대 향수를 담은 작품으로 오는 28일 오후 10시50분 방송된다.



인터파크와 전속계약

밴드 **자우림**이 인터파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인터파크는 26일 "자우림이 지향하는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도록 콘서트, 방송, 음악적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험해도 낭떠러지 아니면 도전"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박보영

박보영(25)은 귀여운 외모 만큼이나 밝고 명랑한 소녀 이미지를 가진 배우다. tvN 금토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에서 음탕한 귀신에 빙의된 나봉선을 연기한다고 했을 때 기대보다 걱정 어린 시선이 많았다. 상반되는 이미지가 자칫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보영은 아역부터 다져놓은 탄탄한 연기력이 있었다. 자신에게 빙의하는 배우 김슬기를 철저히 관찰해 완벽히 그로 변신했고 본인 특유의 개성까지 첨가해 모든 우려를 불식시켰다. 긴 호흡의 드라마가 처음이면서도 극의 흐름을 온전히 이끌었다. 상대 배우와의 '케미'까지 만들어내면서 '국민 여친'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왜 이제야 드라마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방극장에 잘 어울렸다.

박보영은 두려움 때문에 장편 드라마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드라마를 선택한 데는 유제원 감독과의 만남이 큰 역할을 했다.

"원래 작품 정하기 전까지는 감독님과 미팅을 안 하는데 대표님 권유로 감독님을 만나게 됐어요. 출연 결정도 안 했는데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 고민했죠. 그런데 감독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서는 길에 하겠다고 했어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신뢰가 가는 신비로움을 가진 분이셨어요."

선택은 옳았다. 유제원 감독은 현장을 누구보다 편하게 해줬다. 군더더기 없는 연출로 쓸 데 없는 시간을 줄여 쫓기듯 촬영하지 않았다. 양희승 작가도 대본을 제때 집필해 시간을 맞췄다. 박보영과 영화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는 촬영감독은 그가 감정을 잡는 타이밍을 알아채고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도움을 줬다. 삼박자가 고루 맞아떨어진 팀워크 덕분에 촬영 현장은 늘 즐거웠다. 그 분위기는 시청자에게까지 전달돼 높은 시청률로 이어졌다.

박보영이 나봉선이라는 캐릭터에 애착을 갖게 된 것은 시청자 사랑 때문만은 아니다. 연기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다. "나봉선이 저와 안 어울릴 거라고 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해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저도 배우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걸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변신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했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기 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숙제죠."

그 말처럼 '오 나의 귀신님'은 박보영에게

감독님 덕분에 드라마 두려움 극복
나봉선, 한계 뛰어넘게 해준 캐릭터
힘들 때마다 일기장 보고 기운 얻어

있어 도전이었다.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도전을 선택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때 이른 성공이었다.

"'과속스캔들' 이후에 안 좋은 일이 겹쳐 배우를 관두려고 한 적 있어요.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하루 아침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상황판단이 안 되는 나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슬프게도 연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아무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도움이 됐어요. 마음가짐도 달라졌고요. 낭떠러지가 아닌 이상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해요. 아직 20대니까 넘어져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박보영은 연기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동안 쓴 일기장을 펼쳐본다. 거기에 쓰인 응원을 받았거나 좋았던 일들에서 다시금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되찾는다. 인터뷰 할 때도 버릇처럼 일기장을 보고 온다는 박보영에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행복'이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전하는 인류의 진화

KBS 다큐 '넥스트 휴먼' 프리젠테이터로 참여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인류의 진화를 다룬 KBS 다큐멘터리 '넥스트 휴먼'의 프리젠테이터로 나섰다.

26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재혁PD(사진)는 "베르나르가 의외로 흔쾌히 출연을 승낙했다"며 "인류의 진화는 그가 실제로 고민하고있던내용들의 연장선상이었다. 실제로 멘트를 1을 주면 5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넥스트 휴먼'은 KBS가 2년 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만든 다큐멘터리다.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 왔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지를 다뤘다. 베르나르는 국내 다큐멘터리 최초로 프리젠터로 방송에 참여해 다양한 비유와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 내레이션은 배우 조재현이 맡았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과학 다큐멘터리다. 초고화질 4K영상과 초고속 촬영, 바디스케이프 기법 등의 최신 장비를 도입했다. 철저한 고증과 국내 최고 규모의 제작비를 투입해 징기스칸의 대규모 전투와 원정, 마야 문명, 바이킹 초기 모습 등을 담았다.

무엇보다 해외 방송사와 완전 협약을 이뤘다는 점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 파이어니어사와의 공동 제작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실제로 대만 PTS사를 비롯해 해외 여러 나라에 선판매됐다.

4부작으로 구성된 '넥스트 휴먼'은 인류의 탄생 시점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를 예견하는 내용을 담는다. 내달 3일 '돌연변이의 탄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매주 목, 금요일에 KBS1에서 방송된다. /하희철 기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WOLFGANG AMADEUS MOZART
DIE ZAUBERFLÖTE
타미노 나승서 파미나 박미자 밤의여왕 오미선
파파게노 김동섭 자라스트로 장영근 파파게나 김문희
모노스타토스 김동섭 1st 시녀 김윤지 2nd 시녀 이미선 3rd 시녀 류현수
변사 김대엽 1st 무사 최경일 2nd 무사 김준한 천사 이민지 신소연 안지혜
지휘 서희태 연출 이의주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시흥시립합창단
2015. 9. 19(토) 7:30PM / 9. 20(일) 5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후원 시흥시 SIHEUNG CITY 빙그레
예매 세종 문화티켓 02-399-1000, 인터파크 1544-1555
티켓 VIP 7만원 R 5만원 S 3만원 A 2만원 B 1만원 공연문의 02-6292-9370

여름 끝자락, 베토벤 열정에 젖어볼까

27~29일 서울시향 연주회

교향곡 6·7번으로 관현악 무대

정명훈, 피아니스트로 실내악 선사



여름 끝무렵에 특별한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7일과 28일 '정명훈의 베토벤 교향곡'과 '정명훈의 베토벤 스페셜' 등 관현악 무대를 선보인다. 29일에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자가 아닌 피아니스트로 나서는 '프리미엄 실내악 II: 정명훈의 피아노 앙상블'이 공연된다.



정명훈

서울시향은 27일과 28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과 교향곡 7번을 연주한다. 두 편의 교향곡은 베토벤이 창작력의 정점에서 세상에 알린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전원 교향곡'으로 잘 알려진 베토벤 교향곡 6번은 자연에 대한 감사와 찬미가 녹아있는 곡으로 편안하고 이완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교향곡 7번은 베토벤 중기의 걸작으로 '무도의 권화'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리듬감과 휘몰아치는 광기가 돋보인다.

서울시향은 2006년 재단법인 첫 해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베토벤 사이클을 통해 연주력의 초석을 닦은 바 있다. 9년이 지난 2015년 그동안 발전한 서울시향의 앙상블과 정명훈 감독의 베토벤의 원숙한 해석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9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프리미엄 실내악 II: 정명훈의 피아노 앙상블'이 열린다. 이 공연에서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바이올린 스베틀린 루세브, 비올라 수석 홍웨이황, 첼로 주연선, 박진영 등 서울시향 수석 단원들과 서울시향 전 클라리넷 수석인 채재일이 함께 앙상블을 이룬다.

이완과 멜랑콜리, 그리고 격정이 교차되는 헨델-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로 서문을 연다. 이어 전위적인 모차르트의 피아노 사중주를 연주한다. 마지막 무대에서 연주할 곡은 메시앙의 '세상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다. 이곡은 메시앙이 괴를리츠 수용소를 무대로 정명훈 예술감독이 2008년 직접 연주에 참여한 작품이라 더욱 기대를 갖게 한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11년 공백기 극복의 여정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10분



정준하·김동욱·임은경·최다니엘과 B1A4의 산들·공찬이 출연해 저마다 감춰뒀던 흥을 꺼내놓는다. 임은경은 11년 공백기에 있었던 힘들었던 에피소드와 자신을 스타덤에 올려놨던 이동통신사 광고에 얽힌 비밀을 공개한다. 또 공백기에 쇼핑몰 모델로 일했던 비화를 공개하며 대박이 날 거라는 예상과 달리 망했다고 덤덤하게 밝힌다. 상처와 슬픔을 딛고 연기자로 다시 우뚝서기까지의 다사다난했던 임은경의 과거사를 낱낱이 공개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KBS1 '코리아, 생명의 희망을 심다' 오후 11시40분

인구의 30% 이상이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나라, 영아 100명 중 9명이 사망하는 나라 캄보디아의 슬픈 현실과 그들을 돕는 한국의 모습을 그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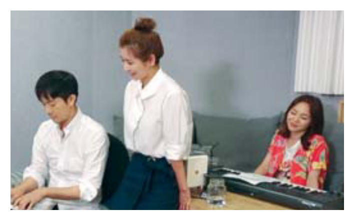
◆ SBS '자기야-백년손님' 오후 11시15분

박광현은 8개월 차에 접어든 풋풋한 결혼 생활에 대해 가감 없이 털어놓는다. 아내와의 알콩달콩한 일상과 '신입 사위'로서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공개한다.



◆ JTBC '님과함께-최고의사랑' 오후 9시40분

장서희는 왁스의 새 앨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남편 윤건의 작업실을 깜짝 방문한다. 왁스를 만난 장서희는 열혈팬을 자처하지만 왁스는 애정행각 좀 그만하라며 돌직구를 날린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일(목)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Story on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4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부탁해요, 엄마 (재)	05:00 MBC 뉴스 05:10 건강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S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유자식상팔자 (재) 10:2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45 연쇄쇼핑가족 (재)	05:50 리얼다큐 숨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나는 자연인이다 (재) 11:50 속풀이쇼 동치미 (재)	06:00 SNL 코리아 꿀잼 에디션 (재) 06:30 집밥 백선생 (재) 07:5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수요미식회 (재) 11:50 집밥 백선생 (재)	06:00 곽승준의 쿨까당 06:40 Let 미인 5 (재) 08:00 고성국의 빨간 의자 08:50 오 나의 귀신님 (재) 10:10 오 나의 귀신님 (재) 11:3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제27회 TV바둑 아시아선수권대회 15:55 오늘의 경제 16:05 다문화 청소년 힐링캠프, 꿈을 쏘다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15 인간극장 스페셜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활의 발견 (재) 15:05 후토스 미니미니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콩다콩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안녕하세요 스페셜	12:00 MBC 정오뉴스 12:20 여자를 울려 (재) 13:30 2015 코리아 주니어 오픈 국제탁구대회 14:30 똑?똑! 키즈스쿨 15:10 마법천자문 15:40 헬로키즈 싸이걸스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자기야-백년손님 (재) 14:00 문화가중계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5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찾아서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 50 뉴스&이슈	13:1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5:00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재) 16:20 집밥 백선생 (재) 17:40 코미디 빅리그 (재)	13:10 수요미식회 14:00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4 16:40 울지 않는 새 17:30 현장토크쇼 택시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한국인의 밥상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KBS 미래포럼 23:00 KBS 뉴스라인 23:40 코리아 생명의 희망을 심다 24: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오늘부터 사랑해 20:30 생생정보 20:55 비타민 22:00 어셈블리 23:10 해피 투게더 24: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밤을 걷는 선비 23:15 경찰청 사람들 2015 24:35 MBC 뉴스 24 24:5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용팔이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35 나이트라인	18: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재) 19:55 JTBC 뉴스룸 21: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23:00 썰전 24:20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찾아서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21:50 리얼다큐 숨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9:00 삼시세끼 정선편 (재) 20:40 젠틀맨리그 21: 40 비법 23:00 슈퍼스타K7 24:40 집밥 백선생 (재)	18:25 2015 FIVB 배구 월드컵 21:40 집밥 백선생 (재) 23:00 집밥 백선생 24:2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국내외 골프무대 韓 남녀 '전성시대'

김세영-김효주, LPGA 신인왕 각축
이수민, KPGA 대회서 다관왕 노려


김세영



김효주

한국 남녀 골프의 루키들이 국내외 골프대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015시즌 신인 2강 구도를 형성한 김세영(22·미래에셋)과 김효주(20·롯데)는 자존심 대결에 들어간다.

김세영과 김효주는 오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프래트빌의 로버트 트렌트 존스 골프트레일(파72)에서 열리는 요코하마 타이어 LPGA 클래식(총상금 130만 달러·약 15억원)에 출전한다.

둘은 25일 기준 LPGA 신인왕 부문 1, 2위에 올라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김세영이 1051점으로 1위, 김효주가 1004점으로 2위다.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하면 신인왕 포인트 150점을 가져간다. 2위, 3위는 각각 80점, 75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대회 김세영과 김효주의 성적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

세계랭킹 1위인 박인비(27·KB금융그룹)와 2위 리디아 고(18)가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신인들의 우승 도전에 큰 벽이 사라졌다. 김세영은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과 롯데 챔피언십에서 시즌 2승을 거뒀다. 김효주는 JTBC 파운더스컵에서 시즌 첫 승을 올렸다. 승수는 김세영이 더 많지만 상위 10위 안으로 대회를 마치는 '톱10 피니시율'은 김효주가 47%(17개 대회 중 8개)로 공동 5위, 김세영은 42%(19개 대회 중 8개)로 공동 7위다.

한국 남자 골프 2015 시즌 '루키' 이수민(22·CJ오쇼핑)은 두 달 만에 재개되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다관왕에 도전한다.

27일부터 나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 하늘코스(파72·7059야드)에서 열리는 제58회 KPGA선수권대회는 한국오픈과 더불어 국내 남자대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다.

국가대표를 거쳐 올해 정규 투어에 데뷔한 이수민은 대상(최우수선수상) 포인트(1645점)와 평균 타수(70.25타), 신인왕(574점)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군산CC오픈에서 우승해 상금 순위에서도 1위(2억4000만원) 최진호(31·현대제철)에 이어 2위(2억2600만원)에 올랐다. 이수민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 상금 1억6000만원을 받으면 역전도 가능하다.

이수민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2007년 김경태(29·신한금융그룹)가 신인 선수로서 유일하게 세웠던 4관왕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 당시 김경태는 3승을 거두며 대상과 상금왕, 신인왕, 최저 타수상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수민은 올해 1승을 포함해 SK텔레콤 오픈 준우승 등 올 시즌 상반기 참가한 5개 대회 모두 톱20에 이름을 올리는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2014년 상금왕 김승혁(29)을 비롯해 동갑내기 라이벌 이창우(22·CJ오쇼핑), 디펜딩 챔피언 매슈 그리핀(호주) 등이 출전해 이수민의 상승세에 유일한 변수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이청용·기성용, 팀 리그컵 승리 견인

크리스털팰리스 4-1 勝
스완지시티 3-0 勝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의 이청용(사진)이 리그컵에서 득점포를 터뜨렸다.

이청용은 26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셀허스트파크에서 열린 2015-2016 캐피털원컵 슈루즈버리(3부리그)와의 경기에서 연장전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면서 4-1 승리를 도왔다.

이청용은 2-1로 앞선 연장 전반 7분 왼쪽 측면에서 드와이트 게일이 찔러준 패스를 감각적으로 골로 연결시켰다. 이청용의 골로 3-1로 앞선 크리스털 팰리스는 연장 후반 윌프리드 자하의 추가골로 4-1로 완승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전반 9분 슈루즈버리에 선제골을 내주고 0-1로 리드를 당했다. 하지만 전반 39분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든 뒤 연장전에서 3골을 몰아넣으며 역전승을 거뒀다.

이청용은 지난 15일 올시즌 2라운드 아스널과 홈 경기에 후반 교체 선수로 출전했지만 22일 아스톤빌라와의 3라운드 경기에선 교체선수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이청용은 이날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주전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편 기성용이 복귀해 81분을 소화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가 리그컵에서 요크시티를 눌렀다. 같은날 스완지시티는 리버티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캐피털원컵 요크시티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이날 선발 출전한 기성용은 후반 36분 존조 셸비와 교체됐다. 올시즌 3라운드 선덜랜드전까지 2경기 연속 결장했지만 리그컵 경기에 선발 출전해 81분을 소화하면서 몸상태가 회복됐음을 알렸다.

스완지시티는 이날 전반 2분 나단 다이어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 뒤 후반 19분 매트 그라임스의 추가골과 후반43분 마빈 엠네스의 쐐기골로 3-0으로 완승했다. /하희철 기자



추신수, 4타수 2안타… 16경기 연속 출루

강정호, 대타 안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16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치고 볼넷 1개를 얻었다. 시즌 100번째 안타를 채운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244(409타수 100안타)로 약간 올렸다.

이날 포함해 후반기에 선발로 출전한 29경기에서 모두 출루에 성공한 추신수는 시즌 출루율도 0.340에서 0.342로 높였다. 특히 벌리를 상대로 통산 타율을 0.390(41타수 16안타)으로 올리면서 '천적'으로 등극했다. 2번 테이블 세터로 자리를 굳힌 추신수는 올스타 휴식기 이후 타율 0.314(102타수 32안타), 출루율 0.445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추신수는 1회 중전 안타를 터뜨린 뒤 선취 득점을 올렸다. 시즌 득점은 60개로 늘었다. 9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깨끗한 좌전 안타를 쳐냈지만 후속타자가 침묵하면서 더는 진루하지 못했다.

텍사스는 마무리 투수 숀 톨러슨의 난조로 5-6으로 역전패했다.

한편 선발 명단에서 빠졌던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대타로 나와서 안타를 쳤다.

같은 날 마이애미 말린스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원정경기에서 강정호는 팀이 1-5로 끌려가던 8회초 선두타자인 투수 자레드 휴즈 타석에서 대타로 들어섰다.

마이애미의 좌완 선발 브래드 핸드와 대결한 강정호는 1볼-0스트라이크에서 2구째 시속 89마일(약 143㎞)의 바깥쪽 직구를 밀어쳐 우전안타를 만들었다. 시즌 타율은 0.288에서 0.290으로 올랐다.

피츠버그는 마이애미에 2-5로 패했다. /하희철 기자

발렌시아, UEFA 챔스리그 본선 확정

스페인 최초로 5팀 출전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가 AS모나코(프랑스)를 제치고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올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는 스페인 팀이 5팀이나 참가하게 됐다.

발렌시아는 26일(한국시간) 모나코의 루이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AS모나코와의 2015-2016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원정에서 1-2로 패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3-1로 승리한 발렌시아는 1, 2차전 합계 4-3으로 간신히 AS모나코를 따돌리고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지난 시즌 정규리그 1~3위), 세비야(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발렌시아까지 모두 5팀을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 올렸다.

역대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소속팀이 5개나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즌부터 유로파리그 우승팀에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주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혜택을 봤다. /하희철 기자

The previous CEO of Hyundai Emco and others raised the doubt about negligence

현대엠코 정수현 전 사장 등 배임 의혹

The previous CEO of Hyundai Emco and others are pointed out for their negligence About how Hyundai Emco, a subsidiary company of Hyundai automobile, supported Soelim Geabal inc. which Jung Eui Sun privately owns about 800 million wons.

It is because an enormous size of a land that Emco has owned for a long time was found close to the applicable land when the supposed purpose of the financial support that Emco offered to Seolim was originally for 'the pay back for the land rent for landscape tree planting'.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서림개발 소유 야생 임야 어귀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엠코의 표식이 꽂혀있다. /손진영 기자

Thus, Emco apparently rented a land they didn't need ,and for that, it was giving away the money to manage the private real estate company of the owners.

A prominent figure in a legal profession stated "if it is true, the representative board members of the time when Emco and Seolim had a contract on the land rent and decided to pay for it could be charged for negligence.

The regulation of the additional penalty on specific economic crimes states that when representative board members spend more than five hundred million wons negligently, imprisonment for longer than 3 years is to be sentenced.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엠코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서림개발(주)에 8억여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엠코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등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대엠코가 서림개발에 돈을 준 명분이 '조경수 묘목 식재용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인데, 해당 토지 인근에 엠코가 예전부터 소유해온 대규모 땅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엠코가 실제 필요도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이를 핑계로 오너일가의 개인 부동산관리회사 운영비를 제공해온 셈이다.

25일 법조계 인사는 "이것이 사실이면 엠코가 서림개발과 토지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키로 결정할 당시 엠코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회사 대표이사 등이 5억원 이상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3					5		
2			5		7		6	
	6				3			
4			3		5		2	9
5		9				7		3
3	7		1		4			8
			2				7	
	4		8		1			6
		3					9	

9				1	7	5	3	
1			3	6	5	4		
							1	
		8	5			6		
	1			8			9	
		5			1	7		
	7							
		2	1	7	6			8
	6	1	4	9				3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8	3	4	9	6	2	5	1	7
2	9	1	5	8	7	3	6	4
7	6	5	4	1	3	9	8	2
4	8	6	3	7	5	1	2	9
5	1	9	6	2	8	7	4	3
3	7	2	1	9	4	6	5	8
6	5	8	2	3	9	4	7	1
9	4	7	8	5	1	2	3	6
1	2	3	7	4	6	8	9	5

9	2	4	8	1	7	5	3	6
1	8	7	3	6	5	4	2	9
6	5	3	9	4	2	8	1	7
7	3	8	5	2	9	6	4	1
2	1	6	7	8	4	3	9	5
4	9	5	6	3	1	7	8	2
8	7	9	2	5	3	1	6	4
3	4	2	1	7	6	9	5	8
5	6	1	4	9	8	2	7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딸이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연하보다 이해 폭 넓은 사람 택하시길

엄마의 마음으로

Q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정규직으로 다니는 딸이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사귄 것 같습니다. 사귀는 동안 딸이 행복해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아 사귀는 것이 맞냐고 몇 번 물어보아 확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낫다고는 했지만 안 좋겠지요. 인연이 여기까지 인가요?

저도 나이 등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괜찮았습니다. 딸은 혼기가 꽉 찬 나이로 좋은 인연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과 결혼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A 따님은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고 재주를 가지고 있으나 항상 바쁘다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주의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직장은 숨 한번 제대로 돌리기 어려운 긴장 속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도 하니 스트레스와 피곤의 연속일 것입니다.

업무가 시작되면 긴장 속에서 날마다 일을 해야 하니 몸과 마음이 지치고 신경이 곤두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바쁜 일상을 살다보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도 많지는 않을 터 연하보다는 이해의 폭이 넓을 사람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남자는 금(金)기운이 작용하는데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재산을 만드는데 폭넓으며 그런 만큼 사람들의 가장 고민인 돈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재복이 있습니다.

헤어지긴 했지만 궁합을 언급하면 표면적으로 생일지(生日지)에 합을 이뤄 속궁합이 좋겠으나 그러나 이미 떠난 인연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은 아직 젊은 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차후에도 소띠나 소날에 태어난 사람과는 인연이 닿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칫 소날에 태어난 사람을 만나 合하는 것은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나 결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정신적으로는 이성적인 면에서 감성적인 면으로의 변화가 되며 육체적으로는 근육이 이완 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남자가 묘절지(墓絶地:묘지로 들어가 단절됨)로 가게 되면 가정생활에 생기가 없어 피로감이 축적되고 운이 나쁠 때는 쇠병사(衰病死:쇠퇴하여 병이 걸려 사망함과 같은 흉함)로 가기도하여 파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2016년 새로운 마음으로 변신하도록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7일 (음 7월 14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밖으로 나아가세요. **60년생**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72년생**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보이기 바랍니다. **84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대가의 빛을 보게 됩니다.

소 — **49년생** 연인, 부부의 선물 등 서비스가 좋은 날입니다. **61년생** 책임을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73년생**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85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호랑이 — **50년생**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62년생** 대성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74년생** 발전과 명예는 현재로서는 환상일 뿐입니다. **86년생** 귀인을 만날수 있으니 여행을 떠나세요.

토끼 — **51년생** 상당히 기분이 좋은 날이 될것입니다. **63년생** 하루 일과가 무난하고 평화롭게 진행됩니다. **75년생** 현금과 의외의 수입으로 오만해 질 수 있습니다. **87년생** 재물에 욕심이 생기면 안됩니다.

용 — **52년생** 꾀하는 일에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64년생** 다음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76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를 만났습니다. **88년생**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때입니다.

뱀 — **53년생** 모든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65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77년생** 일은 풀리지 않고 얽혀만 갑니다. **89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마세요.

말 — **54년생** 주위사람들 모두가 귀하의 편을 들어줍니다. **66년생**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8년생**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다른 일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양 — **55년생** 건강문제는 빨리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67년생**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절대 금물입니다. **79년생** 약점이 들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91년생** 금전, 직장, 이성운 모두 불리합니다.

원숭이 — **56년생** 의외의 일들을 격게 될 것입니다. **68년생** 금전운은 무난합니다. **80년생** 의외의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92년생**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입 조심하세요.

닭 — **57년생** 이익이 있으나 여유가 없어 발견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고집을 버리세요. **81년생** 혼자의 힘으로 목표 달성 어렵겠습니다. **93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개 — **58년생** 가끔씩의 휴식은 약이됩니다. **70년생**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82년생** 재발된 병으로 가족에게 근심 주게 됩니다. **94년생** 바른 마음 가짐을 가지고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돼지 — **59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71년생** 노력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83년생** 첫 단추를 잘 끼워라, 다른것은 다 필요없습니다. **95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는 운입니다.

북한 말 몇 마디에 축제 벌일 때인가



송병형의 딴생각

청와대가 연찬회 중이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불러내 자축 파티를 벌였다. 그동안 북한의 막무가내 억지에 시달렸던 답답함이 확 뚫린 듯 승전 분위기에 도취해 있다. 하지만 과연 승리감에 도취할 때인가? 냉정을 찾고 꼼꼼히 지나간 위기를 복기해보자.

일단 결과부터 살펴보면 얻은 것은 북한의 말 몇 마디 뿐이다.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당국자 간 회담도 하겠다지만 얼마나 실속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추석 이후 일주일 가량 뒤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다. 북한은 당 창건일에 맞춰 '더 멀리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다고 난리다. 우리 정부가 비난 한 마디라도 한다면 북한은 특유의 '몽니'를 부릴 게 뻔하다. 다치게 해 잘못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쳐서 안됐다는 뜻인지 모를 '유감' 표명조차 그때는 빛이 바랠 공산이 크다.

확성기방송으로 북한을 혼쭐냈다고 한다. 휴전선에 비정상이 발생한다면 다시 방송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북한을 사람에 비유하면 확성기 방송은 참기 어려운 피부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정도다. 적어도 공포의 메르스나 말기암은 아니다. 그런데 어느새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략무기급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자화자찬에 클릭수나 시청률을 노린 언론의 얄팍함이 더해진 결과다. 냉정하게 말하면 말폭탄 공격으로 말 몇 마디 얻어냈을 뿐이다. 말폭탄 위협으로 휴전선판 '비정상의 정상화'가 실현될지 지켜볼 일이다.

대량살상무기가 판치는 지금 세상에서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결정타를 때릴 수 있는 무력이다. 북한의 말 몇 마디에 모든 이목이 쏠린 사이 북한군은 자신의 결정타를 드러내 결전 상대인 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포병 전력으로 한국군의 시선을 묶어놓고는 후방에서 미사일 시위를 벌였다. 한국군에는 북한 후방을 감시할 정보자산이 없다. 감시위성이나 정찰기를 운용하는 미군을 노렸다. 바다로는 잠수함을 대거 풀었다. 바다 속에서 한국군은 장님이다. 미군의 감시위성과 핵잠까지 나서야 잠수함 추적이 가능하다. 군사대국으로 굴기 중인 중국을 감시해야 할 미 핵잠이 북한 잠수함 기지 앞에 24시간 대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 잠수함을 놓치는 게 당연하고, 펜타곤은 비상이 걸렸다고 전해진다.

미사일 개발에 올인해 온 북한은 얼마 전 신포급 잠수함을 개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섰다. SLBM은 육상 발사 탄도미사일과 차원이 다르다. 잡아내기 어려워 육상 미사일이 당할 경우 보복 수단으로 쓰인다. 상대가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다. 1차대전 패전국 독일은 국제적 제재를 교묘히 피해 전투기와 잠수함을 찍어냈다. 독일 전투기와 잠수함의 활약상은 잘 알려져 있다. 이번 도발을 기회로 잠수함의 위력을 확인한 북한도 지금쯤 웃음을 지으며 SLBM을 탑재할 전략잠수함을 열심히 찍어내고 있을지 모른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25일 핵탄두를 개발 중인 북한 과학자들이 핵실험을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4차 핵실험 임박설이다. 육상 미사일과 SLBM에 핵탄두가 달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핵탄두가 아닌 생화학탄두만이라도 수도권에 2000만이 몰려 있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다. 북한이야 건국 때부터 지방분산 정책이었다. '혁명의 수도'라는 평양도 인구가 300만명에 못 미친다. 더구나 지하 깊숙한 벙커에 김정은이 숨어 든다면 우리로서는 결정타를 가할 수단이 없다.

이래도 북한의 말 몇 마디에 축제를 즐길 때인가? /정치부장

社說

근본적인 경제 대책 제시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해소됨에 따라 큰 짐 하나를 던 후에 임기후반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앞으로는 한층 홀가분하게 경제활성화에 역량을 모으고 싶을 것이다.

중국경제의 성장감속과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인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경제도 아직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국제수지는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럴 때 경제를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국내의 유효수요이다. 쉽게 말해서 내수가 살아나야 국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수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숨이 막힌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장년층 이상 연령대의 노후불안, 과도한 교육비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재벌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에만 혈안이 돼 있다. 재벌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돈도 협력업체나 종업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니 내수는 살아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애쓰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개혁이나 임금피크제가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유익한지는 알 수 없다.

이럴 때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지만, 이 정도의 대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대책이 끝나는 올 연말 이후에는 내수가 다시 얼어붙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고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할 때이다.

LG 스마트폰만의 특별한 향 담아야할 때



기자 수첩

임 은 정 <산업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화장실에 들어서면 아로마향이 풍긴다.

화장실 거울 앞에 시트러스 계열의 향과 피톤치드 성분이 섞인 트윈향 디퓨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디퓨저 소개글에는 '트윈타워만을 위한 전세계 유일무이한 트윈향'이라고 적혀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분께 디퓨저에 대해 물었더니 LG트윈타워 화장실에 디퓨저를 비치한지 2년이 다 돼 간단다.

그는 "향이 좋죠? 이 디퓨저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1년 전부터 디퓨저를 접착제로 바닥에 고정시켜놨다"며 "왜 이걸 가져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트윈향 디퓨저는 꼭 갖고 싶은 마음을 들게끔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

현재 LG전자 스마트폰에는 트윈향 디퓨저의 매력이 필요한 때다.

올해 2분기 전략 스마트폰 G4를 출시한 LG전자는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위태로운 모습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분기별 세계 스마트폰과 휴대폰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 2분기 1762만대의 휴대폰을 팔아 4%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5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1위에 올랐으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등이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는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등이 순서대로 1~5위를 차지했다.

내부적으로도 LG전자의 휴대폰 사업은 위태로워 보인다. 지난 4월 G4를 출시했지만 올 2분기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의 영업이익은 2억원에 그쳤다.

스마트폰 시장은 점차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 성능을 강화하기 보다는 LG전자만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스마트폰에 불어넣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이다. LG전자 스마트폰의 '유일무이한 향기'를 기대해본다.

해외직구 물품, 최대 5770원 세금 감면

소비자 119

앞으로는 20만원이 넘는 해외직구 물품이 3kg 이하 일 경우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또 통관인증 대상이 늘고 해외직구 물품 A/S 환경이 개선돼 병행수입물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kg 이하이면 과세운임을 30% 인하하기로 했다.

20만원이 넘는 해외 직구 물건은 특급탁송화물이 사용된다. 특급탁송화물은 해외 직구의 19%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무게가 3kg 이하의 물품이 82% 정도다.

따라서 3kg 이하의 특급탁송화물의 과세운임을 30% 절감할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직구물품이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는 최대 5770원 정도의 세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소액면세를 해주는 한도와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 가격을 100 달러에서 150 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시기를 애초 내년 1월에서 올해 4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직구로 반입되는 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회원사의 보증서 발행을 늘려 진품보증 기능을 확대하고 보증서가 첨부된 상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TIPA가 판매업체에 구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더불어 병행수입물품의 A/S를 강화하기 위해 TIPA를 통한 A/S 대상 물품에 가전과 유아용품 등을 추가했다.

이 외에 우선 통관인증 대상을 연말까지 200개를 추가하고 병행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간 최대 100억원의 수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산품 병행 수입 시장 활성화 방안의 규모는 2조원대로 알려졌다. /김성현 기자 minus@

인사

◇교육부 △부이사관 ▲대학학사제도과장 박성수 △서기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유지완 ▲산학협력정책과장 이상돈 ▲부산대학교 박 철 ▲충남대학교 시설과장 조성현
◇대전시교육청 △행정 4급 겸임 ▲안전총괄과장 최경엽(총무과장) △행정 4급 전보 ▲감사관 청렴감사총괄담당 김선용 △교육행정 5급 전보 ▲기획조정관 정회근 ▲교육정책과 이동섭 이병호 조 훈 ▲유초등교육과 우삼제 ▲과학직업정보과 조영수 ▲체육예술건강과 임진식 ▲학생생활교육과 정종관 ▲안전총괄과 엄기표 ▲행정과 김기태 ▲재정과 김덕기 ▲대전평생학습관 학부모지원과장 김수인 △공업 5급 전보 ▲안전총괄과 김민철 △사서 5급 전보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문헌정보1과장 차복순 ▲〃 문헌정보2과장 고호준 △보건 5급 전보 ▲체육예술건강과 최정숙 △전문경력관 가군 전보 ▲안전총괄과 곽태경
◇부천시 ◇승진 <5급> ▲이재우(행정자치부 파견) ▲박동준(원미구) ▲박성국(소사구)

부고

▲김한갑씨 별세, 김성중(경찰 공무원)·득중(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장)·우중(세무사)씨 모친상=25일, 전북 익산시 신동 원광대 장례식장 201호, 발인 27일 오전 9시, 063-855-1734
▲박문규씨 별세, 박종성(매니토웍 크레인 그룹 코리아 대표)씨 부친상, 박상규(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최연씨 장인상=26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8일 오전, 02-2072-2014


부드러움이
쏟아지는
해변으로가요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